

# 2017 사학과 가을 정기답사



|      |               |
|------|---------------|
| 답사지  | 전라남도 일대       |
| 일 시  | 9. 28 ~ 9. 30 |
| 인솔교수 | 김 성 보         |
|      | 조 태 섭         |
|      | 최 윤 오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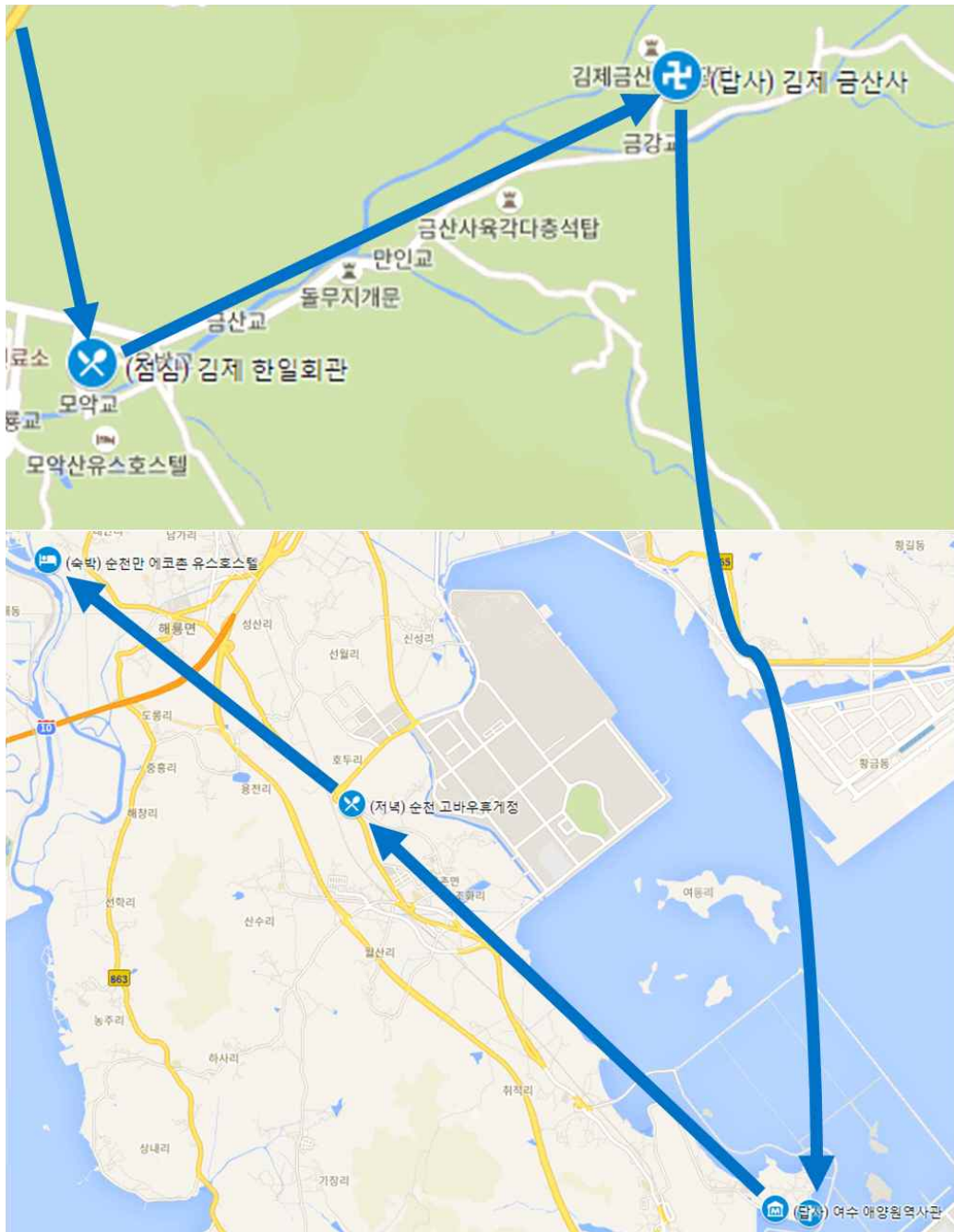
## 답 사 일 정

| 1일차  |               |                |                   |
|------|---------------|----------------|-------------------|
| 지역   | 장소            | 시간             | 비고                |
| 대운동장 |               | 7:30 집합        | 8:00 출발           |
| 김제   | 한일회관          | 12:00 도착       |                   |
|      |               | 1시간 식사         |                   |
|      | 금산사           | 13:00 도착       | 40분 답사            |
|      |               | 13:50 출발       |                   |
| 여수   | 손양원           | 16:00 도착       | 30분 답사            |
|      | 애양원           | 16:40 도착       | 40분 답사            |
|      | 고바우 휴게정       | 18:00 도착       |                   |
|      |               | 1시간 식사         |                   |
| 순천   | एको촌 유스호스텔    | 19:30 도착       |                   |
|      |               | 1시간 휴식         |                   |
|      |               | 20:30 행사 시작    |                   |
|      |               | 2시간 행사         | 레크레이션 및 뒤풀이       |
| 2일차  |               |                |                   |
| 순천   | एको촌 유스호스텔    | 7:30 식사        | 배식은 8:00까지        |
|      |               | 9:00 출발        |                   |
| 화순   | 고인돌 유적지       | 10:00 도착       | 1시간 답사            |
|      |               | 11:00 출발       |                   |
|      | 민속정           | 11:30 도착       |                   |
|      |               | 1시간 식사         |                   |
|      | 운주사           | 12:30 도착       | 2시간 답사            |
|      |               | 14:30 출발       |                   |
| 강진   | 다산 기념관        | 16:00 도착       | 30분 답사            |
|      | 다산 초당         | 16:50 도착       | 15분 답사            |
|      | 백련사           | 17:40 도착       | 30분 답사            |
|      |               | 18:10 출발       |                   |
|      | 다산 수련원        | 18:30 도착       |                   |
|      |               | 18:30 식사 시작    |                   |
|      |               | 1시간 휴식         |                   |
|      |               | 20:00 치킨 회식    |                   |
|      |               | 이후 방별 뒤풀이      |                   |
| 3일차  |               |                |                   |
| 강진   | 다산 수련원        | 07:30 식사       | 배식은 8:00까지        |
|      |               | 9:00 출발        |                   |
| 나주   | 국립나주박물관       | 10:00 도착       | 30분 답사            |
|      | 고분군           | 해설사 해설         | 30분 답사            |
|      |               | 11:10 출발       |                   |
|      | 미천서원          | 11:30 도착       | 30분 답사            |
|      |               | 12:00 출발       |                   |
|      | 전통한옥집         | 12:20 도착       |                   |
|      |               | 1시간 식사         |                   |
|      | 나주읍성          | 13:20 시작       | 나주 시내 곳곳을 한 시간 답사 |
|      |               | 14:20 출발       |                   |
| 광주   | 광주 5.18 민주 묘지 | 15:10 도착       | 40분 답사            |
|      |               | 15:50 출발       |                   |
| 서울   |               | 20:00~20:30 도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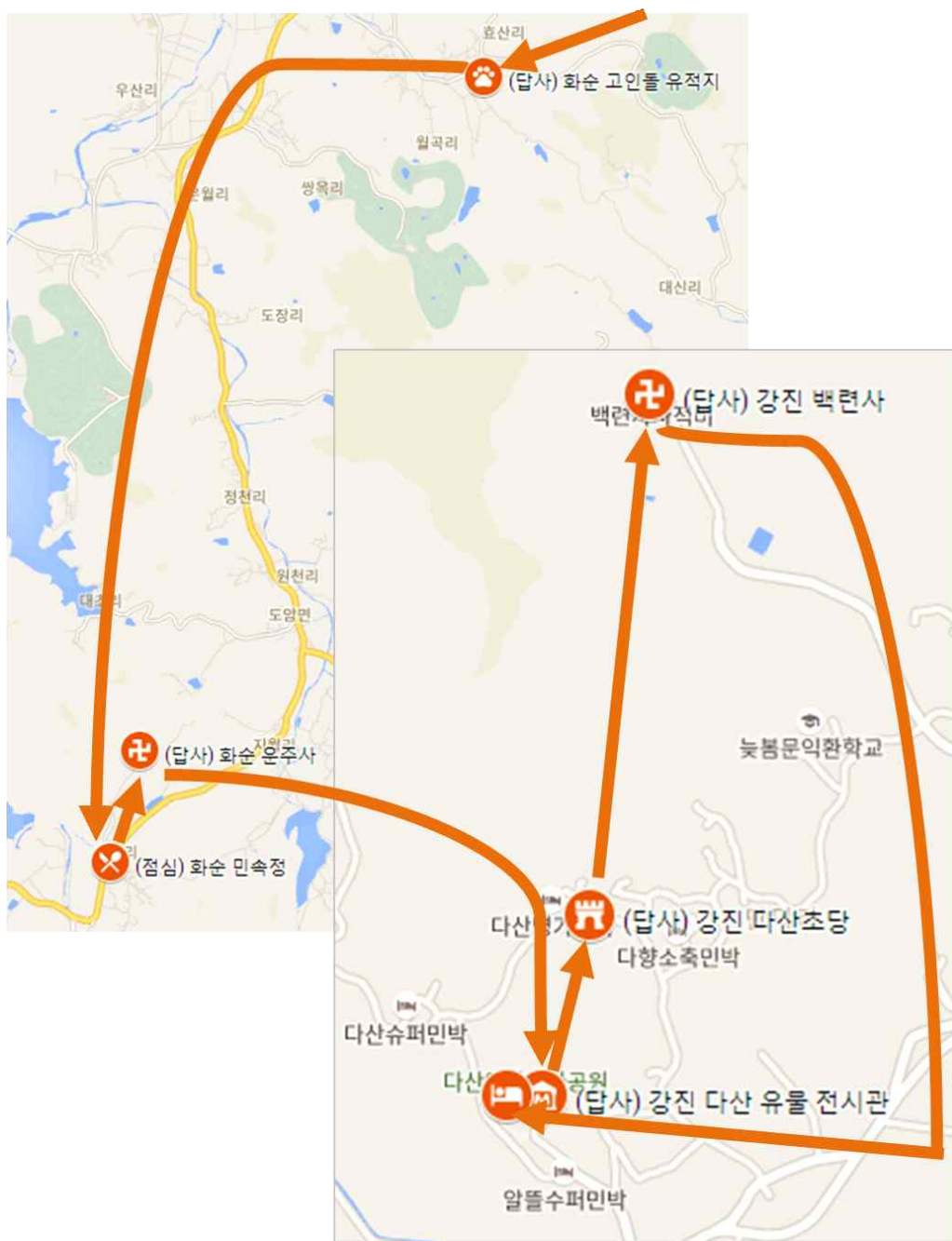
## <답사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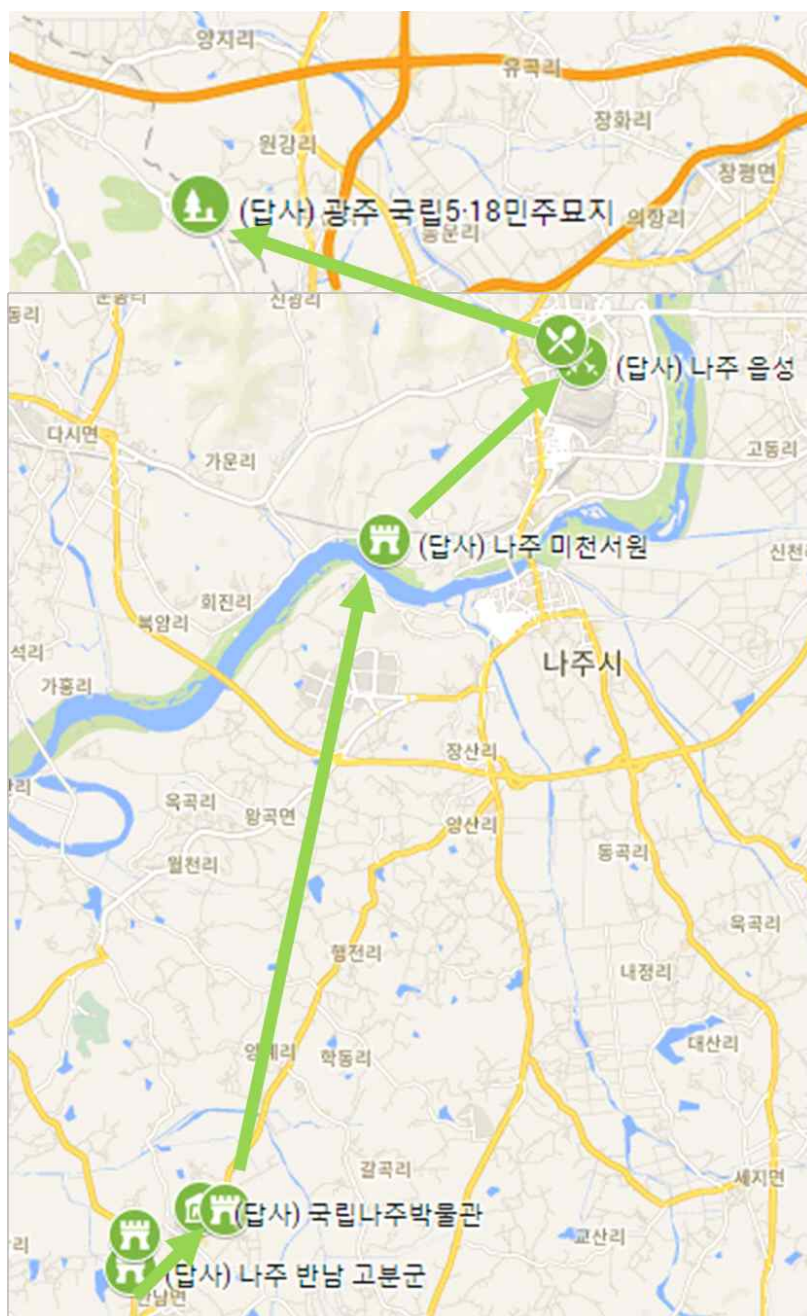
## <1일차 답사 지도 - 김제, 여수>



## <2일차 답사 지도 - 화순, 강진>



### 〈3일차 답사 지도- 나주, 광주〉



# 목 차

## 금산사의 유적 7

- 김제 전북 지역의 미륵 신앙 / 7
- 금산사의 건축적 구조 / 8
- 금산사의 역사 / 9
- 금산사의 문화재 / 10
- 금산사와 미륵신앙 / 11

##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14

- 손양원 목사의 생애 / 14
- 여순사건과 손양원 목사 / 15
-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소개 및 의의 / 16

## 애양원 역사박물관 18

- 한국의 한센병 치료의 역사 / 18
- 애양원 연혁 / 20
- 애양원의 한센병 치료 / 21
- 애양원의 의의와 그 후의  
한센병 치료 / 22

##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지 24

- 고인돌의 형식 / 24
- 평매바위 / 26
- 감태바위 채석장 / 28
- 감태바위 고인돌군 / 29
- 대신리 발굴지 / 30

## 운주사 31

- 운주사 창건설 (上) / 31
- 운주사 창건설 (下) / 33
- 운주사의 석탑 / 35
- 운주사의 불상 현황과 명명(命名) / 36
- 운주사 칠성석(七星石)에 대한 조사 / 38

## 다산초당 40

- 유배지로써의 강진,  
그리고 다산의 강진행 / 40
- 다산의 강진생활과 다산초당 / 42
- 강진에서 꽃 핀 다산의 사상 / 44

## 백련사 46

- 백련사의 연혁과 성쇠 / 46
- 백련사와 다산, 그리고 혜장선사 / 47

## 국립 나주박물관 & 반남 고분군 50

- 국립 나주박물관 개관 / 50
- 주요 유물 / 50
- 전시 내용 / 51
- 마한 / 51
- 반남 고분군의 무덤양식 / 55

## 미천서원 & 나주읍성 60

- 미천서원과 남인 / 60
- 미천서원 / 61
- 나주읍성 개요 / 65
- 나주읍성의 구조와 형태 / 66
- 나주향교 / 67

## 국립 5.18 민주묘지 74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74
- 민주묘지 조성의 역사 / 76
- 5·18에 대한 사후 처리와  
배상문제 / 77
- 5.18 특별법 / 79
-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현황 / 81

## 금산사의 유적

1. 김제 전북 지역의 미륵 신앙
2. 금산사의 건축적 구조
3. 금산사의 역사
4. 금산사의 문화재
5. 금산사와 미륵신앙

### 1. 김제 전북 지역의 미륵 신앙

전라북도 지역에는 한반도에 유례없는 평야가 자리 잡고 있다. 벼농사가 발달한 평야에서는 산출량이 높았으나 동시에 그 때문에 권력이 수탈하려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미륵신앙은 본래 경제적 풍요와 관련이 있었던 만큼<sup>1)</sup> 농사 산출량이 높아서 일찍이 풍요를 누렸던 이 지역과 잘 어울렸다.<sup>2)</sup> 더군다나 그 풍요를 탐한 권력이 이 지역을 착취했을 때, 농민들을 달래주기에 중생들에게 풍요로운 안녕의 미래를 약속하는 미륵신앙이 제격이었다.<sup>3)</sup>

특히나 익산, 김제, 전주 쪽 지역은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성행지일뿐만 아니라 기원지이기도 하다. 백제에서는 부여 천도를 계기로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창건된 절이 바로 미륵사다.<sup>4)</sup> 이후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김제에 금산사를 세우면서 지역적으로 미륵신앙의 흐름이 이어진다. 진표율사가 세운 금산사는 당대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이를 유도한 통일 신라 조정의 목적은 백제 유민을 종교적으로 회유하는 것이었다.<sup>5)</sup> 그러나 신라 조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민들이 미륵신앙이 가지고 있는 전복적 성격과 호응했다. 그 중심적인 장소가 바로 오늘날 김제시와 완주군에 걸쳐있는 모악산이다.<sup>6)</sup>

완산주(전주)를 도읍으로 두었던 후백제의 건국 역시 이 지역에 성행했던 미륵신앙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sup>7)</sup> 이처럼 이 일대에서는 신라하대, 고려말기,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1) 白承鍾, 1997, 「한국에서의 미륵 신앙의 역사적 전개」, 『원불교사상』 2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527쪽.

2) 송화섭, 1998, 「湖南地方의 彌勒祭 研究」, 『南都 民俗學의 進展 : 東隱 池春相博士 停年紀念』(간행위원회 엮음), 태학사, 230~231쪽.

3) 송화섭, 위의 논문, 231쪽.

4) 김상현, 2009,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韓國史學報』 37, 고려사학회, 17쪽.

5) 김성환, 2006, 「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이 되는가?」, 『道敎文化研究』 25, 한국도교문화학회, 31쪽.

6) 김성환, 위의 논문, 32쪽.

등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닥칠 때마다 미륵신앙이 고조되었다. 이런 전복적 기원의 관점에서 특히나 주목할 만한 지역은 오늘날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과 부안군 일부를 포함한 고부다.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역시 일정 부분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은 운동이었다.<sup>8)</sup> 실제로 정읍은 전라북도에서 남원 다음으로 미륵불상이 많이 남아 있다.<sup>9)</sup>

(정치외교 13 이의진)

## 2. 금산사의 건축 구조

금산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절로 역사의 굴곡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막대한 규모의 사찰이다. 금산사는 미륵신앙만을 구현하고 실천한 곳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미륵신앙과 현세신앙 그리고 선불교의 특징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금산사의 공간구성에는 풍수가 활용되었고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혈처에는 방등계단<sup>10)</sup>이 배치되어있다.<sup>11)</sup>

금산사의 가람은 일주문, 금각문, 사천왕문 등 주변 일대의 문과 5층 석탑, 방등계단, 미륵전, 대적광전, 명부전, 나한전, 요사, 중향각 등의 중심도량 일대에 산재한 전각들로 이뤄져 있다.<sup>12)</sup> 현대 금산사는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금산사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는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중창(重創)되거나 훼손되어왔기 때문이다.

정사각형의 석단 위에 석종 모양의 탑을 올린 구조물인 방등계단은 용의 각종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으며,<sup>13)</sup> 금산사의 중심 금당인 미륵전은 보기 드문 3층짜리 목조 건물로 정유재란 이후 재건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사찰조영에 있어서 미륵상생신앙 상징체로서의 방등계단과 미륵하생신앙 상징체로서의 미륵전의 관계는 불이적(不二的) 관련성이 있으며, 명부전은 매개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금산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닌 새로운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sup>14)</sup> 모악산 기슭 한켠에 위치한 금산사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넓고 평평한 수림덕분에 평지 사원 같은 느낌을 주

7) 김남희, 2011, 「증산교의 미륵신앙 수용과 전개과정」, 『한국불교학』 61, 한국불교학회, 87쪽.

8) 김재영, 2008, 「동학농민혁명 발생의 종교, 사상적 배경」, 『신종교연구』 18, 한국신종교학회, 154쪽.

9) 김재영, 위의 논문, 153쪽.

10) 금강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각형의 넓은 석조 구조물을 방등계단이라 한다.

11) 박정해, 2015, 「금산사입지의 풍수와 공간구성」, 『동아시아불교문화』 24, 593~599쪽.

12)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2007, 『금산사』, 대원사, 45~60쪽.

13) 박정해, 2015, 「금산사입지의 풍수와 공간구성」, 『동아시아불교문화』 24, 583~585쪽.

14) 오광석, 장재진, 2012, 「금산사 가람 조영에 내재된 미륵신앙의 유토피아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8-12, 270~276쪽.

### 3. 금산사의 역사<sup>16)</sup>

금산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료가 없다. 필사본 『금산사사적』에는 법왕(法王, 599~600년) 즉위년에 칙령으로 살생을 금하고 그 이듬해에 금산사를 개창하고 승려 38명을 출가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법왕이 살생을 금한 이듬해에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의 출가를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금산사가 법왕 때 창건되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제에는 미륵 신앙이 성행하고 있었고 이곳과 멀지 않은 익산에 대규모의 국가적 사찰 미륵사(彌勒寺)가 창건되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금산사 역시 백제 말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금산사가 크게 중창(重創)된 것은 766년 진표(생물년 미상)에 의해서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금산사는 혜덕왕사(慧德王師) 소현(韶顯, 1038~1095년)이 머무르고 있을 때 또 다시 크게 중창된다. 현존하는 석조물인 5층석탑(보물 제25호)과 방등계단(方等戒壇, 보물 제26호), 석련대(石蓮臺, 보물 제23호), 노주(露柱, 보물 제22호) 등은 모두 이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7)</sup> 금산사는 대사(大寺), 봉천원(奉天院), 광교원(廣敎院)의 세 구역으로 나뉘어 거대한 사역에 많은 전각들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러한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소현의 중창에서 비롯된다. 그 가운데 대사 구역만 현존하고 동북쪽의 봉천원과 남쪽의 광교원은 그 터만 남아 있다.

금산사는 원간섭기에 다시 한 번 중창된다. 1328년(충숙왕 15) 원나라에서 유식학과 계율로 이름이 높았던 원명대사 해원(海圓, 1262~1330년)이 귀국하여 중창하였다.

금산사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는 데 중심이 되었으나 병화 중에 미륵전, 대장전, 광교원 등 모든 가람과 산내 40여 암자가 모두 불타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 있는 건물들은 모두 1601년(선조34) 수문(守文)대사에 의해 이루어진 재건의 대역사에서 건립된 것들이다. 금산사 재건은 이후 35년 동안 계속되어 1635년(인조13) 완공되었다.

1635년 재건된 금산사는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화엄 대법회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화엄 학림에서 학생들의 불교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6 선송회)

15)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앞의 책, 44쪽.

16) 이 단락은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위의 책, 15~41쪽을 주로 참고함.

17)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위의 책, 28쪽.

## 4. 금산사의 문화재

미륵전과 같이 금산사에 위치한 많은 문화재들은 금산사가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계속 중창되며 중요한 사찰로 존속되었던 역사를 보여준다. 절 입구의 당간지주는 화강암 간대와 기단석 등이 완전하게 남아있으며, 8세기 후반 통일신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경내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3층 목조 건물인 미륵전이 서향으로 세워져 있다.<sup>18)</sup> 금산사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미륵전은 내부 3층이 모두 흰하게 트인 특수한 법당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법당 안에 위치한 거대한 삼존불상이 시선을 압도한다. 미륵전과 법당 내부 불상의 엄청난 규모는 금산사가 예부터 미륵 신앙의 중심 사찰로서 크게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sup>19)</sup>

미륵전 위쪽의 높은 단은 송대라고 불리며, 그 위에 방등계단과 오층석탑이 있다. 방등계단은 수계의를 거행하는 곳으로, 2층 석단 위에 종 모양의 사리탑이 봉안되어 있다.<sup>20)</sup> 계단 남쪽에는 오층석탑이 있다. 이중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전체적인 조각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 작품으로 추정한다.<sup>21)</sup> 심원암 북강삼층석탑은 심원암의 북쪽에 위치해,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이 있고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석련대는 석조연화대좌의 줄임말로, 돌로 깎은 연꽃잎 장식의 불상 대좌라는 의미다.<sup>23)</sup> 고려시대 특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고려 전기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24)</sup> 노주는 석조 대좌 위에 보주형 장식을 한 돌기둥인데, 그 모양과 조각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sup>25)</sup> 점판암으로 만든 청석탑으로 주목되는 육각다층석탑의 기단에는 연꽃이 아래위로 조각되어 있다. 탑신부에는 층마다 몸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10층과 11층만 탑신석을 갖추고 있다.<sup>26)</sup> 탑신에는 좌불상이 선각되어 있고, 화강암 기단 위에 양련과 복련이 새겨진 대석이 있다. 이러한 석조 유물들은 고려 전기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금산사가 법상종의 중요 사찰이었던 모습을 전해준다.

그 밖에 미륵전 벽화와 명부전 지장보살 후불탱화는 조선 후기의 불화들이다. 또한 금산

18) 문화재청, 2010, 『(문화재대관) 사적. 제1권』, 문화재청, 431~432쪽.

19)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앞의 책, 대원사, 90쪽.

20) 문화재청, 앞의 책, 문화재청, 432쪽.

21) 김환대 외 1명, 2009, 『한국의 탑 : 보물편. 하』, 한국학술정보, 122~123쪽.

22) 문화재청, 앞의 책, 문화재청, 432쪽.

23)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앞의 책, 대원사, 100쪽.

24)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위의 책, 102쪽.

25) 문화재청, 앞의 책, 문화재청, 432쪽.

26) 김환대 외 1명, 앞의 책, 124쪽.

사 원편에 있는 부도 발에는 혜덕왕사진응탑비와 원명대사비 등 석비 2기와 부도 12기가 있다. 부도는 주로 조선 후기의 승탑들인데, 최근 진표율사의 승탑을 건립해 놓았다.<sup>27)</sup>

(14 이선회)

## 5. 금산사와 미륵신앙

한 사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불교 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sup>28)</sup> 사찰은 불교 교리의 표상이며 교리는 사찰 건축물의 곳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산사와 미륵신앙은 사찰과 불교 교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고는 통일 신라 시대의 진표율사, 후백제의 견훤, 고려시대 혜덕왕사 등을 통해 금산사에 내재된 미륵신앙이 변모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표 율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진표율사에 대한 기록은 송(宋) 찬녕(贊寧)이 지은 ‘송고승전(宋高僧傳)’과 일연의 삼국유사 등에서 나타난다.<sup>29)</sup> 이들 기록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진표는 지장보살에게서 계법을, 미륵불에게서 간자를 받아 점찰(占察)법을 통한 미륵신앙을 주창했다. 진표가 금산사를 세웠는지에 대해선 사료 간 기록이 다르지만 진표 이후 금산사가 미륵신앙과 연계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송고승전에 진표가 백제국인으로 표현된 점으로 미루어 금산사는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를 그리워하는 유민들에게 미륵도량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sup>30)</sup>

후백제에 이르러 금산사는 왕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금산사와 견훤의 연대는 후백제 내에서 미륵신앙의 입지를 확인시켜준다.<sup>31)</sup> 견훤은 왕건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통한 후삼국의 통일을 시도하였고, 왕실은 이를 위해 미륵사와 금산사와 같은 기존 거찰(巨刹)들의 불사(佛事)를 활용하였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금산사가 견훤에 의해 세워졌다는 기록이나<sup>32)</sup> 견훤이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사실을 금산사와 왕실 간의 결탁을 여실히 드러낸다.<sup>33)</sup>

고려의 삼국통일 후에도 금산사는 왕건에게 간자189매를 바쳐 왕실과 연결되었으며 가

27) 문화재청, 앞의 책, 문화재청, 433쪽.

28) 오광석, 장재진, 앞의 논문, 269쪽.

29) 박광연, 2013, 「신라 진표(眞表)의 미륵신앙 재고찰」, 『불교학연구』 37, 불교학연구회, 280쪽.

30) 최완수, 1994, 『명찰순례』, 대원사, 202쪽.

31) 진정환, 2010,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동악미술사학』 11, 동악미술사학회, 158쪽.

32)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나 견훤과 금산사와의 결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33) 진정환, 앞의 논문, 162쪽.

람 내에 오층석탑이 세워지는 등 진표계 미륵신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더욱이 고려중기 혜덕왕사 소현은 금산사를 크게 중창(重創)하여 금산사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사상적 배경까지 확대하였다. 금산사의 주지로 부임한 소현은 가람 내에 광교원(廣敎院)을 짓고 그 안에 여러 종파의 주존불과 개조(開祖)를 함께 봉안함으로써 화엄신앙과 중국 법상종, 천태학 등의 통합을 도모하였다.<sup>35)</sup> 이를 통해 진표계 미륵신앙 중심의 단일형 법당으로 존재하던 금산사는 여러 사상이 융합된 종합적 대가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교원 지역에 진표영당이 있었다는 것과 혜덕왕사가 미륵불을 예배했다는 후속 기록 등을 통해 소현의 금산사 중창도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며 승유억불 정책의 시행으로 불교는 쇠퇴하였다. 금산사 역시 조선 전기 사세가 매우 침체되어 이 시기에 관해서는 알려진 자료도 거의 없다.<sup>36)</sup>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승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전란 중에 사찰은 모조리 불에 타버렸다. 왜란이 끝난 후 다시 중창된 금산사에서는 많은 대중이 모인 화엄 대법회가 열리기도 했다.<sup>37)</sup>

조선 후기 들어서는 봉건제의 기틀인 신분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민중이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회구하는 반봉건적 성격의 조직적인 민중운동을 이끌기 시작했다. 이 때 미륵신앙은 새로이 체계화되거나 변형되면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향한 열망으로 나타게 된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사회계급의 모순과 외세 열강의 침입에 대해 민중은 낡은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사회변혁 의지를 미륵신앙을 통해 보였다.<sup>38)</sup>

호남북부 지역은 미륵신앙의 발원지이며 미륵신앙의 메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륵신앙이 유행한 곳이었기에 조선 후기 어려운 시대 상황 속 미륵신앙이 적극적으로 부활할 때에 자연스레 금산사가 주목 받게 되었다.<sup>39)</sup> 조선 말기 증산교를 세운 강증산 역시 자신이 바로 금산사의 미륵불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미륵신앙으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하려 시도한 바 있다.<sup>40)</sup> 조선 후기 미륵신앙은 “이망정흥(李亡鄭興)” 논리와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했는데, 조선 후기에 미륵불이나 생불 관련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 정감록이 이용되었

34) 박현진, 2013,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검토」,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110.

35) 박현진, 위의 논문, 111쪽.

36) 황인규, 2015,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적 전개와 사격」, 『불교학보』 7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58쪽.

37)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앞의 책, 8쪽.

38) 김남희, 앞의 논문, 88쪽.

39) 전경미, 2005, 「조선후기 호남 북부지역의 사찰벽화 연구」, 『강좌 미술사』 2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20쪽.

40) 김남희, 앞의 논문, 90쪽.

고, 그 주역은 승려와 신도, 또는 무당이였다.<sup>41)</sup> 이처럼 금산사와 미륵 신앙은 조선 후기 들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민중과 결합하게 된다. (14 구형준, 14 박정운)

## [금산사 참고문헌]

- 송화섭, 1998, 「湖南地方의 彌勒祭 研究」, 『南都 民俗學의 進展 : 東隱 池春相博士 停年紀念』(간행위원회 엮음), 태학사
- 최완수, 1994, 『명찰순례』, 대원사
- 白承鍾, 1997, 「한국에서의 미륵 신앙의 역사적 전개」, 『원불교사상』 2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전경미, 2005, 「조선후기 호남 북부지역의 사찰벽화 연구」, 『강좌 미술사』 2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김성환, 2006, 「전북 모악산은 어떻게 ‘성스러운 어머니 산’이 되는가?」, 『道敎文化研究』 25, 한국도교문화학회
- 김남윤, 이응목 외 1명, 2007, 『금산사』, 대원사
- 김재영, 2008, 「동학농민혁명 발생의 종교, 사상적 배경」, 『신종교연구』 18, 한국신종교학회
- 김상현, 2009,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韓國史學報』 37, 고려사학회
- 김환대 외 1명, 2009, 『한국의 탑 : 보물편. 하』, 한국학술정보
- 문화재청, 2010, 『(문화재대관) 사적. 제1권』, 문화재청
- 진정환, 2010,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동악미술사학』 11, 동악미술사학회
- 김남희, 2011, 「증산교의 미륵신앙 수용과 전개과정」, 『한국불교학』 61, 한국불교학회
- 오광석, 장재진, 2012, 「금산사 가람 조영에 내재된 미륵신앙의 유토피아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12, 대한건축학회
- 박광연, 2013, 「신라 진표(眞表)의 미륵신앙 재고찰」, 『불교학연구』 37, 불교학연구회
- 박현진, 2013,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검토」,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 고성훈, 2015,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 박정해, 2015, 「금산사입지의 풍수와 공간구성」, 『동아시아불교문화』 24,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황인규, 2015,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적 전개와 사격」, 『불교학보』 7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41) 고성훈, 2015,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135쪽.

##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1. 손양원 목사의 생애
2. 여순사건과 손양원 목사
3.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소개 및 의의

### 1. 손양원 목사의 생애

손양원(孫良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서 손종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호는 산돌이며 아버지가 장로인 독실한 기독교가정에서 성장하였다. 1908년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1913년 칠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5년 재학 중 궁성요배를 거절하여 퇴학을 당했고, 선교사 맥레이(Macrae, L.)의 항의로 복교되었다. 이후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아버지가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자, 학업을 중단한 후,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스가모 중학교에 입학하여 1923년 졸업했다.<sup>42)</sup>

그 후 부산 나병원교회, 울산 방어진교회·남창교회 및 양산의 원동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고, 동양선교회에서 일하던 중 초량교회의 목사 주기철(朱基徹)과 친교를 맺기도 하였다. 주기철 목사와 친분을 나누면서 1934년까지 부산, 양산 일대에서 교회를 개척했다.<sup>43)</sup>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수의 나병원자 요양원인 애양원(愛養院)의 교회에서 봉사하였으며 우상숭배를 비판하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0년 체포되어, 광복이 되어서야 출옥하였다.<sup>44)</sup> 애양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손양원 목사의 목회는 나환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으로 공산주의자 안재선에게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잃게 되었다.<sup>45)</sup> 하지만 그는 사형 직전에 있던 안재선을 찾아내어 구명 운동을 펼쳤

42) 김승태, 2011, 「손양원의 초기 목회활동과 신사참배 거부항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17~248쪽.

43) 이상규, 2011, 「해방 이후 손양원의 생애와 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19~250쪽.

44) 김승태, 앞의 논문, 217~248쪽.

45) 이상규, 2012, 「손양원,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가르친 한국교회의 지도자」, 『한국사 시민강좌』 50, 일조

고 결국 그를 손재선이라 부르며 양아들로 삼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 손양원 목사는 6.25전쟁 중 퇴각하던 인민군에 체포되어 1950년 9월 28일 여수 인근 과수원에서 총살당하였다.<sup>46)</sup> (10 정재화)

## 2. 여순사건과 손양원 목사

여순사건은 제주도 4·3사건과 함께 남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좌우익간의 충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 14연대의 지창수 상사를 비롯한 좌익계 하사관들이 일으켰으며, 이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무장 폭동을 일으켜 전라남도 동부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하였다. 이들 하사관들은 대부분 전남출신인 20대의 젊은이들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여순사건은 여타의 군인폭동과는 달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민간인과 학생들이 가담했다.<sup>47)</sup>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사건은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난 역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주제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면서부터 여순사건의 진상과 피해현황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미미하지만 본격화되고 있다.<sup>48)</sup>

여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과,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선 사건이 종료된 뒤의 좌우익을 망라한 경제적 피해를 살펴보면, 여수·순천에서 약 60억 원 내외의 손실이 생겼고, 이러한 피해는 가옥소실과 공장파괴에 의해 주로 일어났다. 또한 대전·광주·순천에서 재판을 거쳐 사형된 자, 행방불명된 자, 입산자 등을 염두에 둔다면 여수·순천 지역의 사망자가 적어도 3,000~10,000명가량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건 초기부터 살펴보면, 여수·순천지역의 반군과 좌익세력은 약 600명 내외의 경찰과 우익 인사를 처형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 후 여순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군경 및 우익세력에 의한 좌익과 그 연루자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sup>49)</sup> 이로 인해 전투원에 비해 민간인의 희생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비대칭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sup>50)</sup>

각, 202~212쪽.

46) 이상규, 2011, 앞의 논문, 219~250쪽.

47) 손태희, 2015, 「여순사건 참가계층의 제유형」, 『남도문화연구』 2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59~60쪽.

48) 홍영기, 2001, 「문헌자료와 증언을 통해본 여순사건의 피해 현황」, 『4.3과 역사』 1, 제주4.3연구소, 52~54쪽.

49) 홍영기, 위의 논문, 61~64쪽.

한편, 손양원 목사는 해방 이후 여수 애양원교회로 복귀하여 목회자로서 활동했으며, 여순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비록 그를 중심으로 한 애양원교회의 신앙공동체 활동은 여순사건 속에서도 큰 충격과 동요를 겪지 않았지만,<sup>51)</sup> 손양원 목사는 아들인 손동인과 손동신을 잃었다. 당시 좌익학생들이 기독교는 친미적이라 하며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이 와중에서 아직 학생이었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좌익학생들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손양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고, 또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아홉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한다. 손양원 목사는 1949년 이후 양자로 입양한 안재선을 데리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처참한 여순사건 속의 그의 신앙심 가득한 행동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그를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기도 하였다.<sup>52)</sup>

(14 정혜인)

### 3.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소개 및 의의

여수 애양원에는 손양원 목사의 헌신적인 삶의 흔적을 본받고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막상 애양원에는 손양원 목사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료가 많지 않았다. 다녀가는 이들은 손양원 목사의 흔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적 자료나 유품이 비치 된 기념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1989년 안용준 목사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의 유품 150여 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기념관 건립 준비의 틀이 마련되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해 애양원 교회는 전국을 순례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손양원 목사의 가족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준비과정 끝에 1991년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건축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건축 사업에 돌입하였다.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을 건축하며 네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졌다. 첫째, 은혜로운 일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은혜 받는 일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 넷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한다. 기념관 건립에는 많은 이

50) 김무용, 2016,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대항 게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화 전략」, 『역사연구』 31, 역사학연구소, 246쪽.

51) 최병택, 2011, 「손양원과 구라(救癩) 선교 : 애양원교회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9쪽.

52) 이상규, 2011, 앞의 논문, 235쪽.

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모두 함께 지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순교기념관을 건축함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와 함께 지어졌다는 것이다. 기념관 건축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1993년 4월 27일 준공이 끝날 때 까지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각 구역별로 돌아가며 기도를 드렸다. 기념관의 정면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적혀있다. 이는 손양원 목사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인 것과 동시에 죽음을 무릅쓴 손 목사의 각오이기도 했다.<sup>53)</sup>

에양원 성산교회 성도들이 건축헌금 33,937,300원을 모았으며, 준공 후 남아있던 1억 4천만 원의 부채는 1994년 말 에양원 성산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청산되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의 512개 교회와 663명의 개인, 108개 기관들이 현금 등의 도움을 주었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시의 도움을 받아 새 단장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이 외에도 건축 과정에서 설계, 그림 등 여러 분야의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건축 과정 과정에서도 손양원 목사의 순교적 정신과 신앙의 계승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평할 수 있는 부분이다. (13 정세훈)

##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참고문헌]

- 이진원, 1997,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을 찾아서」, 『교육교회』 250,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홍영기, 2001, 「문헌자료와 증언을 통해본 여순사건의 피해 현황」, 『4.3과 역사』 1, 제주4.3연구소
- 김승태, 2011, 「손양원의 초기 목회활동과 신사참배 거부항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최병택, 2011, 「손양원과 구라(救癩) 선교 : 에양원교회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상규, 2011, 「해방 이후 손양원의 생애와 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손태희, 2015, 「여순사건 참가계층의 제유형」, 『남도문화연구』 2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김무용, 2016,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대항 계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과 전략」, 『역사연구』 31, 역사학연구소

53) 이진원, 1997,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을 찾아서」, 『교육교회』 250,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78~79쪽.

## 에양원 역사박물관

1. 한국의 한센병 치료의 역사
2. 에양원 연혁
3. 에양원의 한센병 치료
4. 에양원의 의의와 그 후의 한센병 치료

### 1. 한국의 한센병 치료의 역사

만성 감염 질환으로 분류되는 한센병은 나균이 발병원이므로 나병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0년 10월 5일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한센병이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후 나환자는 한센병력자 또는 한센병환자로 명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과거 한센병을 앓았거나 환자인 사람을 한센인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4)</sup> 한센병이란 명칭은 노르웨이의 의학자인 한센(G.A. Hansen)이 1873년에 이 병의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센병은 나병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데, 1941년에特效약이 발명되어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기록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있어왔는데 이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눈이 멀고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는 벗겨진 것과 같고 지체에는 피가 흘러 악한 냄새가 풍겨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라 하여 한센병을 ‘나질’ 혹은 ‘대풍창’으로 불렀다.<sup>55)</sup> 당시에 일반인들은 한센병을 “천하에 고약한 병”으로 부를 정도로 기피하였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금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치료책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일반인들은 이 병을 고치기 매우 어려운 병으로 인식하였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전염을 우려하여 환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몰아내었다. 즉, 한센병 환자는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효를 중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환자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일은 가족의 몫이었고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처벌

54) 양야기, 2014, 「한센인의 삶 - 소록도병원을 중심으로」, 『JKAN(대한간호학회지)』 44-6, 한국간호과학회, 639쪽.

55) 최병택, 2010, 「남장로회선교부 한센병 환자 수용정책의 성격(1909~1950) : 여수 에양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31쪽.

하는 일이 잦았다.<sup>56)</sup>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도 한센병 환자들은 여전히 버림받은 존재였다. 일본은 1907년 '나(나병) 예방에 관한 건' 제정으로 부랑자와 결식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한 격리수용을 시작하였으며 1931년에 제정된 '나 예방법'으로 1996년 폐지될 때까지 일본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을 강제하였다. 식민지 한국 역시 이러한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16년 소록도에 자혜병원(현 국립소록도 병원)을 세운 후 이곳을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수용시설로 이용하였다. 1930년대 들어 한센병 환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가 시행되었고 환자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소록도로 이송되었다. 즉, 당시까지도 한국에서 한센병에 대한 대책은 문명국과 같은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 한센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소록도에 대해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전하였고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소록도를 낙원으로 소개하여 이러한 선전을 믿고 자발적으로 입소를 하는 환자들도 생겨났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거리를 배회하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을 소록도로 이송시키는 방법을 주된 방책으로 여기고 있었고 1935년 조선나예방령이 공포되어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었다.<sup>57)</sup>

이 시기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 역시 활발하였다. 1909년 북장로회에 의하여 설립된 후 호주장로회에 의하여 운영된 부산 상애원, 미국 남장로회가 1909년에 설립한 광주 나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대표적이다. 광주 나병원은 후에 여수로 터를 옮기고 애양원(愛養院)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으며 이는 1963년 전염병예방법 개정 이전까지 이어졌다. 이전까지 이어져오던 격리주의는 한센병의 치료책이 발견되고 그 전염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해방 이후에 점차 폐기되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정착촌을 만드는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센인 정착촌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했고 1963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한센병의 격리치료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전에도 자발적인 한센인 공동체는 존재했으나 이때부터 전북, 경북, 인천에 정착주택을 착공한 것을 시작으로 1969년까지 69개소의 정착촌에 11,901명의 한센병 환자를 정착시켰다.<sup>58)</sup> 일제시기 이래 주로 강제수용소에 격리되어왔던 한센인은 이제 특수 지역으로 분류된 농장으로 이주하여 농업이나 축산업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었다.

(13 정승주)

56) 최병택, 위의 논문, 232쪽.

57) 김미정, 2012,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 1930~40년대 소록도갱생원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441쪽.

58) 김려실, 2016, 「1970년대 생명정치와 한센병 관리정책 - 김정환의 '인간단지'와 최인호의 '미개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271쪽.

## 2. 애양원 연혁

애양원은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04년 2월 목포 선교부에서 배유지 목사와 오기원 목사를 파송하여 광주 선교부를 만들었으며, 그해 12월 25일 오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림으로써 광주 선교가 시작되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선교활동을 하던 오기원 목사는 급성폐렴으로 순교하였고, 당시 오기원 목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목포에서부터 포사이트(Wiley H. Forsythe) 의사가 급히 광주로 떠났다. 그는 광주로 오던 중 길가에 버려진 여자 나환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광주에 데려왔는데, 윌슨(Robert M. Wilson)과 선교사들은 그녀를 정성들여 치료하였고, 사택을 짓기 위하여 벽돌을 굽던 가마터에 그녀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서양의학으로 한센병을 치료한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윌슨은 1911년 인근의 봉선리에 작은 집을 짓고 본격적으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이었던 광주나병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나병원은 점차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자 찾아왔으며, 1912년 설립된 교회는 1916년 조직교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나환자들의 치료와 선교활동이 병행되어 가던 중 1926년 일제와 광주시는 나병원을 옮길 것을 명하였고 ‘눈물의 이주’라 불리는 강제이주 후 지금의 애양원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26년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에 터를 마련하고 1928년까지 나환자 600여명이 이주함으로써 애양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당시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 ‘비더울프 나환자 수용소’로 시작하였으나 1935년 원장이었던 윌슨 목사가 환우들에게 이름을 공모하여 치료소는 ‘애양원(愛養院)’으로 불리게 되어 교회와 병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애양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1956년 진료과목을 증설하고 기존의 병원건물에서 동서쪽으로 공간영역을 증축하였다. 그러나 1967년에는 당시 원장이었던 토플(Stanley Toefl)의사가 미국의 모교회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함으로써 병원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이후 기존의 병원 건물은 나환자 독신자숙소인 평안사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일시 비워져 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며, 2000년 6월 ‘애양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59)</sup>

(14 하운수)

59) 문화재청, 2004, 『애양교회 및 애양병원 : 실측조사보고서』, 44~45쪽.

### 3. 애양원의 한센병 치료

과거부터 한센병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일본은 1907년 '나(나병) 예방에 관한 건' 제정으로 부랑자와 걸식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한 격리수용을 시작하였으며 1931년에 제정된 '나 예방법'으로 1996년 폐지될 때까지 일본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을 강제하였다.<sup>60)</sup>

당시 일반적으로 한센병에 대한 대책은 “문명국과 같은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 이로써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었고 이는 한센병이 “전염성이 크고 지금 의술로는 전치할 가망이 없는 병중에 가장 두려운 병”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문명국에서는 없앨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센병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에 있다는 인식이 대두해 있었던 것이다.<sup>61)</sup>

그렇기에 1909년 광주 제중병원의 월손에 의해 설립되어 한센병을 완전 퇴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그 출신지로 파송함으로써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취한 애양원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최초로 나병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행했던 의료 기관이었다. 이에 더불어 손양원 목사는 물리적, 의료적 차원에서 병을 치유하는 차원을 넘어 애양원에 피수용된 환자들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적 의식을 지니도록 유도하는 데에 노력하였다.<sup>62)</sup>

선교사들이 주로 사용한 치료법은 대풍자유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대개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거나 집단을 이루어 구걸을 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기관에 수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치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구료의 성격이 짙었다.

환자 1인당 매일 주사비와 주거비를 합쳐 약 7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그 금액은 전액 광주의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 나병원의 경우 정원 600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몰려와 병원 밖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인도적 입장에서 이들을 추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교회는 치료비용을 모두 마련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sup>63)</sup> (14 하운수)

60) 김미정, 2012,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 1930~40년대 소록도갱생원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440~441쪽.

61) 최병택, 2010, 앞의 논문, 234쪽.

62) 최병택, 2011, 「손양원과 구라(救癩) 선교 - 애양원(愛養院)교회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192쪽.

63) 최병택, 위의 논문, 194쪽.

## 4. 애양원의 의의와 그 후의 한센병 치료

한센병 환자에 대한 비차별적, 인간적 치료를 했다는 것에 애양원의 의의가 있다. 애양원 기본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시설이었다. 사실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기독교 적면에서도 한센병 환자를 ‘죄’로 인해 병을 얻게 된 자로 규정하고 이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환자들을 죄로 인해 병을 얻게 된 자로 여기기보다 병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선택된 자’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어 선교사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구료와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애양원의 환자 수용 방침은 외적으로는 격리의 방침을 취하였다. 격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양원의 격리 방침은 환자가 외부인을 접촉함으로써 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전염병 예방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환자들을 평생 격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완치될 경우 환자들은 자유로이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들이 퇴원 후 격심한 사회적 편견 속에 살아갈 길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애양원에 남기를 원하였고 이 때문에 애양원 내 환자 구역은 비교적 안정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애양원이 이들에게 곧 사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 환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하는 역할은 애양원을 운영하는 교회에 주어졌 있었다. 환자들은 입원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였다.

1930년대 후반 손양원 목사의 부임과 함께 애양원 교회는 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신앙공동체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sup>64)</sup> 이후 애양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병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였다. 환자들은 애양원에 속해 있는 한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교회의 역할이 이처럼 커짐에 따라 교회 장로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치조직의 권위도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환자 구역은 급속히 안정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양원이 제공하던 이러한 폐쇄된 사회는 문제점도 있었다. 환자들은 교회의 생활지도에 따라 바깥과는 차단된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생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고, 이후 애양원에서 자립할 때 어려움을 겪고 반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애양원은 기독교적 신념에 입각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였고, 완치되면 퇴소할 수 있는 곳 이었다. 소록도 갯생원과 차이점이다. 소록도 갯생원은 병의 완치 유무와 관계없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완벽히 통제된 생활과 지도를 따르다보

64) 최병택, 2010, 앞의 논문, 240~245쪽.

니, 애양원에서 독립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애양원 이후, 소록도와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 예방법에  
서, 한센병은 성병 및 결핵과 더불어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었으나 한센병 환자는 여전  
히 격리 수용의 대상이었다. 1961년 이후에는 정부가 대규모 정착사업을 주도해, 1963년  
부터는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격리수용이 폐지되고 요양원의 다수 환자들이 정착농원으로  
이주했다.<sup>65)</sup> 그러나 이러한 격리수용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면서, 강제적인 격리법을 폐지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sup>66)</sup>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나병  
계몽 운동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개조하려고 했으며, 이는 당시의 새마을 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 9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한센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6 윤석준)

## [애양원 역사박물관 참고문헌]

### 단행본

문화재청, 2004, 『애양교회 및 애양병원 : 실측조사보고서』

### 논문

최병택, 2010, 「남장로회선교부 한센병 환자 수용정책의 성격(1909~1950)」,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한국기  
독교역사연구소

최병택, 2011, 「손양원과 구라(救癩) 선교 - 애양원(愛養院)교회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미정, 2012,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 1930~40년대 소록도갱생원을 중  
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양야기, 2014, 「한센인의 삶 - 소록도병원을 중심으로」, 『JKN(대한간호학회지)』 44-6, 한국간호과학회

김려실, 2016, 「1970년대 생명정치와 한센병 관리정책 - 김정한의 '인간단지'와 최인호의 '미개인'을 중심으  
로」, 『상허학보』 48, 상허학회

65) 한순미, 2014, 「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4-3, 전남대학교 5.18 연  
구소, 145~148쪽.

66) 한순미, 위의 논문, 145~148쪽.

##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지

1. 고인돌의 형식
2. 평매바위
3. 감태바위 채석장
4. 감태바위 고인돌군
5. 대신리 발굴지

### 1. 고인돌의 형식<sup>67)</sup>

고인돌은 외부로 드러나게 축조된 형태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렇기에 그 연구 또한 한국사학계 발전의 역사와 계속 함께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되지 못한 연구로 인하여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축조 연대, 기능, 기원 등에 있어서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양한 고인돌의 종류 중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미지인 탁자식 고인돌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탁자식 고인돌은 꺾돌 위에 올려 진 덮개돌이 탁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한강 이북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분포 특성상 이전에 한강 이남에서 다양한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기 전까지 북방식 고인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탁자식 고인돌은 중국 휘발하(輝發河) 유역부터 벽류하(碧流河), 대양하(大洋河) 등 요동반도 일대에 다수 분포하며 북한지역에는 대동강 지류, 그리고 남한 쪽에는 황해도와 가까운 강화도 일대에 대다수 분포한다. 그러나 한강 이남으로 오면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들고 규모가 북방 지역에 비해 작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인돌 연구가 진척되기 이전에는 북방식 고인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그러나 경상남도 거창의 주상면 완대리·내오리, 전라북도 고창의 도산리·죽림리, 전라남도 나주의 다시면 송촌리·회진리 등에도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북방식 고인돌이라 명칭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7) 이 단락은 우장문, 2009,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고찰」, 『白山學報』 84, 백산학회, 119~128쪽을 주로 참고함.

탁자식 고인돌은 지표면을 파서 판석 2~3장을 꺾돌로 꺾돌 사이를 흙이나 돌로 채워 꺾돌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 다음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 것으로 완성된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역시 덮개돌을 올리는 과정으로, 수 톤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덮개돌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했다. 이에 탁자식 고인돌에는 흙 언덕을 쌓고 지렛대 혹은 통나무를 이용한 것 외에도 꺾돌의 한쪽 혹은 양쪽 부분을 경사지게 다듬어 덮개돌을 끌어 올리는 노동력을 절감하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고창 도산리·죽림리 고인돌, 강화도 부근리 18호 고인돌 등 꺾돌의 한쪽을 경사지게 한 예는 다양한 지역의 고인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고인돌들에도 지역에 따른 덮개돌의 형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고인돌의 높이는 낮아지지만 덮개돌의 두께는 증가하는 형태를 띤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면 한강 이북까지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강 지류 즈음부터 두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만주, 북한, 강화도 지역은 산지와 구릉이 많아 두꺼운 덮개돌을 운반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은 덮개돌은 사용했지만 남쪽 지방은 평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두꺼운 덮개돌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덮개돌의 차이는 충남 지역에 와서 평균 119cm라는 큰 차이를 보이다가 전남 지역에서 평균 95cm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남쪽 지방의 고인돌의 덮개돌이 북방보다 상당히 두껍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탁자식 고인돌 덮개돌의 두께

| 지역     | 두께(cm) | 지역       | 두께(cm) |
|--------|--------|----------|--------|
| 요령성    | 33     | 길림성      | 34     |
| 북한지역   | 40     | 강화도      | 38     |
| 임진강 유역 | 44     | 북한강      | 48     |
| 남한강    | 62     | 한강 본류 유역 | 67     |
| 충청도    | 119    | 전라도      | 95     |

68)

고인돌은 무덤의 기능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입지조건과 형태 등을 바탕으로 고인돌이 단순히 지석묘(支石墓)의 역할 외에도 제단, 묘표석등과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 대표적으로 이용조·하문식이 포천 일동면 수입리, 강화 하점면 부근리, 광명 철산동 등의 고인돌들을 제단 기능을 했던 고인돌로 추측했던 것과 서성훈·성낙준이 고창 장수제 고인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호 고인돌이

68) 우장문, 2009, 위의 논문, 126쪽, 도표인용

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추정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석묘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대다수의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이나, 유물이 잘 출토되지 않는 점과 넓은 구렁에 위치한다는 점은 지석묘 외의 용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갖게 한다. 그리고 강화 내가면 오상리 56번 고인돌은 같은 곳에 위치한 다른 11기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크며 무덤방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과 개주 석봉산 고인돌은 고인돌의 규모가 매우 크고 높은 구렁 지대에 단독으로 만들어졌고, 현재에도 제단의 기능을 하는 점은 고인돌이 제단 및 묘표석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는다. (13 지준규, 16 안홍민)



69)

강화 오상리 고인돌

## 2. 핑매바위

화순 고인돌은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에 위치하고 있다. 두 마을을 잇는 보검치(보검고개) 양쪽 계곡 10km에 걸쳐 10군에 596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은 계곡 동쪽 산기슭을 따라 열을 이루면서 무리지어 있다.<sup>70)</sup>

핑매바위 고인돌지구에는 춘양 대신리 지동마을에서 보검재로 올라가는 산비탈을 따라 133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그 중 핑매바위 고인돌은 산기슭 약간 높은 대지상에 위

69) 우장문, 2009, 위의 논문, 138쪽, 사진 참조

70)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검색일자 2017. 09. 15.).

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인돌이다. 길이 7m, 높이 4m, 무게 200톤이 넘는 초대형 덮개돌로, 덮개돌의 아랫면을 다듬은 흔적이 뚜렷하고 그 밑에 5개의 고임돌과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덮개돌 전면에 ‘여흥민씨세장산(驪興閔氏世葬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인들의 덮개돌에 돌단검이 새겨진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비문이 새겨진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비문의 내용은 ‘여흥(驪興)에서 일어난 민씨(閔氏) 가문이 대대로 무덤을 써온 선산(先山)’이라는 의미로서, 조선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비문은 고인돌과 관계없이 조선시대에 화순에 정착한 이주민이 남긴 것으로 보이며, 단지 덮개돌 아래에 깔려진 돌들이 이 고인돌이 고인돌문화의 말기(末期)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핑매바위 고인돌은 산기슭 약간 높은 대지상에 규모가 크고 잘 다듬어진 고인돌이 위치하여, 대개 무덤이라기보다는 제단 또는 묘표석의 성격이 강한 고인돌로 볼 수 있다. 또한 핑매바위에서는 다양한 무덤방과 부장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농경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도구들이다.

돌을 주워 던진다는 의미에서 핑매바위라 이름 붙여졌으며, 마고할매 전설, 장군바위 전설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고할매가 치마폭에 돌을 싸서 운주골로 가지고 가다가 치마폭이 터져서 그만 놓고 간 돌이 핑매바위이며, 이 핑매바위 윗부분에 있는 구멍에 왼손으로 돌을 던져 그 구멍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고 들어가지 않으면 딸을 낳는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온다. 핑매바위 아래에 나무로 만든 궤짝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장군옷 같은 것이 있었다 하여 장군바위라 부르기도 한다.<sup>71)</sup>

(14 허난슬)



72)

핑매바위

71) 세계유산화순고인돌유적 공식홈페이지, <http://www.hwasun.jeonnam.kr>, (검색일자 2017. 09. 15.).

72) 사진 출처, <http://www.hwasun.jeonnam.kr>, (검색일자 2017. 09. 15.).

### 3. 감태바위 채석장

고인들은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선들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석문화 중 하나이다. 고인들은 우리나라에 3만여 기 이상 분포되어 있는데,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를 포함한 한반도 서남 해안 지역에 밀집·분포되어 있다. 그 중, 2000년 12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라남도 화순의 고인돌 유적지에는 효산리와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 계곡을 따라 600개의 달하는 고인돌이 무리를 지어 분포하고 있다.<sup>73)</sup>

고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덮개돌이라 할 수 있다. 덮개돌은 자연 암석을 이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암반에서 떼어내야 한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근처엔 고인돌을 만들고 남은 돌과 준비해 놓은 석재들이 많은데, 주변에 거대한 채석장이 4곳이나 있기 때문이다. 효산리에는 1,124개, 대신리에는 3,543개의 석재가 고인돌 유적과 섞여 있어서 고인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잘 보여준다.

이 중 감태바위 채석장은 덮개돌을 만들던 채석장이며, 지동마을로부터 보검재로 넘어가는 길로부터 북쪽에 위치해있다. 감태바위는 길이 6m, 높이 2.5m 정도가 드러나 있는 암벽이다. 이 암벽에는 60cm 내외로 돌결이 나 있어 채석하기에 용이한 석질을 가지고 있다. 올라가 관찰하면 튀어나온 부분을 떼어 내려다만 흔적과, 떼어내려고 판 홈이 보인다. 이 홈에 단단한 돌이나 나무로 파서 지렛대나 췌기를 박아 힘을 쓰면 쉽게 분리될 수 있다. 주변에는 많은 바위들이 덮개돌처럼 떼어진 상태로 놓여 있고 거의 분리되어 있다. 암벽 옆의 바위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은 다시 옮길 것을 생각해서 채석한 후 옮겨 놓은 것이다.<sup>74)</sup>

감태바위 채석장은 고인돌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채석장에는 채석하다 만 석재 등이 남아 있어 고인돌의 상석을 채석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채석장 아래에는 기반석 고인돌, 석실이 노출된 고인돌, 덮개돌이 없는 석실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14 유승현)

73) 화순군, 2003, 『화순고인돌 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 26~27쪽.

74) 세계유산화순고인돌유적 공식홈페이지, <http://www.hwasun.jeonnam.kr>, (검색일자 2017. 09. 15.).

## 4. 감태바위 고인돌 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을 정도로 가히 '고인돌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숫자 뿐 만아니라 크기나 형태 등 다양성 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인돌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의 황해도 은율과 평양 등 대동강 유역에 1만4,000기 정도가 있고 화순과 고창, 강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한지역에 2만4,000기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몰지역 등 개발과정에서 소실된 것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인돌 수는 5만기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 세계에 산재한 고인돌이 약 8만기 정도로 일컬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인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호남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고인돌 수가 무려 2만기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주로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일명 보성재) 계곡 일대에 약 5km 범위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거점지구별로 괴바위 고인돌지구(47기), 관청바위 고인돌지구(190기), 달바위 고인돌지구(40기), 팽매바위 고인돌지구(133기), 대신리 발굴지(46기) 등에 수많은 고인돌이 밀집해 있으며 이미 널리 알려진 감태바위 고인돌 군(140기) 역시 그 중 하나이다.

화순 고인돌유적은 주요 고인돌 주변에 채석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인돌은 도로 옆에 무리 지어 있고, 기슭에 응회암 채석장이 보인다. 그 가운데 감태바위 고인돌 군이 접근성 좋고 흔적도 비교적 뚜렷하며, 감태바위 고인돌지구에는 탁자식, 기반식(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 등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고인돌들이 모두 모여 있다.

전남 화순고인돌 유적은 강화, 고창의 것과 함께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1995년 발견된 유적은 산기슭에 분포되어 있어서 보전 상태가 양호하다. 무엇보다 고인돌과 채석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 가운데 감태바위 채석장에선 여러 고인돌과 채석한 덮개돌, 바위에 나무췌기를 박은 자국 등을 볼 수 있다.

감태바위 고인돌 군 근처에는 돌을 떼려다 만 흔적과 떼어내려고 판 흠이 그대로 남아 있어 채석과정까지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감태바위 고인돌 군 위에는 감태바위 채석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땅 위로 무덤방이 드러나 있는 고인돌에서부터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채석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버려둔 돌들도 볼 수 있다.<sup>75)</sup> (13 지준규)

75) 오주환, 2011,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여행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아름다움」, 상상출판, 148쪽.

## 5. 대신리 발굴지

대신리 발굴지는 지동(地洞) 마을 입구에 위치해있다. 이 유적지는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발굴 단계에서 고인돌, 덮개돌 19기와 주변에서 발견된 무덤방 16기를 포함해 총 35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는데, ‘Radiocarbon dating<sup>76)</sup>’과 ‘TL dating<sup>77)</sup>’의 두 가지 절대연대법으로 유적의 나이를 검토해 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2,500년에서 2,700년 전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발굴지는 묘역이 남과 북쪽의 방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남쪽의 묘역에서 고인돌은 꺾임돌로 받친 바둑판식 고인돌과 고임돌로 구획된 위석형(圍石形) 무덤방이 나타난다. 바둑판식은 ‘기반식(碁盤式)’으로 불리며 ‘남방식 고인돌’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북쪽의 묘역에서는 돌을 쌓아서 올리고 그 안에 나무로 짠 널을 배치한 석곽묘와 얇은 판석을 짜석축과 같이 네 벽을 만들어 형태를 갖춘 석관묘, 그리고 바둑판식 고인돌 등 다양한 구조의 무덤방이 확인되었다. 대신리 고인돌의 가장 큰 특징은 묘역이 계획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덤의 바닥이나 둘레에 한두 겹 이상의 간돌(數石)로 연결된 쌍을 이룬 고인돌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굴지에서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덤방에선 가락바퀴와 붉은간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무덤방 주변에서는 간돌검 편, 돌화살촉, 돌 끌, 턱자귀, 갈돌과 가판, 민무늬토기 편 등이 출토되었다. (13 이윤재)

###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지 참고문헌]

#### 논문

우장문, 2009,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고찰」, 『白山學報』 84, 백산학회

오주환, 2011,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여행 :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아름다움」, 상상출판

#### 웹사이트

세계유산화순고인돌유적 공식홈페이지 (<http://www.hwasun.jeonnam.kr/>)

---

76) 방사선탄소연대측정법

77) 열발광연대측정법

## 운주사

1. 운주사 창건설 (上)
2. 운주사 창건설 (下)
3. 운주사의 석탑
4. 운주사의 불상 현황과 명명(命名)
5. 운주사 칠성석(七星石)에 대한 조사

### 1. 운주사 창건설 (上)

운주사(雲住寺)는 전남 화순 도암면 대초리에 위치한 절로 천불천탑(千佛千塔)과 와불(臥佛) 등 일반적인 사찰들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주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창건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는 운주사의 창건에 대해서 기록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주사는 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 말의 선승인 도선(道詵)이 건립했다는 설, 고려시대 명승인 혜명(惠明)이 건립했다는 설, 통일신라 말기의 능주 지방의 호족세력이나, 능주 지방으로 이주해온 이민족이 개창하였다는 설, 심지어는 천민과 노비들의 해방구역(코뎀)이 되는 곳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자유민들의 자치구역이라는 설까지 매우 다양하다.<sup>78)</sup> 창건시기에 대해서도 전설처럼 도선이 살던 시기에 창건되었다는 설과 고려 초기나 12세기 혹은 11세기 초반을 상한으로 한다는 주장 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sup>79)</sup>

이러한 다양한 설이나 설화 가운데 도선국사가 운주사 창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화와 능주 지방의 지방호족이 주체가 되어서 창건했다는 설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sup>80)</sup> 이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것은 바로 도선창건설일 것이다. 하지만 도선설화 역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설로 나뉘게 된다. 도선국사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자 했다는 설, 나라의 형국이 배의 모양과 같아 배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창건하였다는 행주론, 반대로 신라 왕실에서 군왕지혈을 누르고자 건설했다는 설, 심지어는 중국이 건설해 주었다는 설까지 대단히 다양하다.<sup>81)</sup>

78) 황호균, 2009, 「운주사(雲住寺)의 사찰(寺刹) 창건(創建)과 천불천탑(千佛千塔)의 조성(造成) 배경론(背景論)」,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3~204쪽.

79) 황호균, 위의 논문, 203쪽.

80) 김병인, 2005, 「운주사에 대한 해석양상의 역사적 층위」, 『역사학연구』, 24, 호남사학회, 234쪽.

하지만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4년부터 1989년까지 6년에 걸쳐 네 차례의 종합적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주사의 창건은 늦어도 11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었다.<sup>82)</sup> 이에 비해서 도선은 통일신라 말기 9세기의 사람이었다.<sup>83)</sup> 이것을 통해서 운주사의 창건 추정시기와 도선의 활동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상의 기록 역시 도선이 운주사를 창건했다는 설에 부정적이다. 운주사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역시 도선과 관련된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sup>84)</sup> 따라서 도선창건설은 설득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9년에 시행된 ‘운주사 종합학술조사’에서 실학자 유형원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여지지』에서 운주사가 해명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명기된 내용이 소개되었다.<sup>85)</sup> 유형원의 서술태도가 실증적이고 사실적이며, 해명이라는 구체적인 승려를 지정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운주사에 관한 그 어떤 문헌이나 다른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명창건설이 보다 합리적인 주장으로 도선창건설을 대신해서 제기되었다. <sup>86)</sup><sup>87)</sup>

고려전기인 11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승려 해명(惠明)은 모두 세 곳에서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관촉사의 ‘은진미륵’을 세운 해명(慧明)이다. 나말여초 시기에 승려명에서 慧와 惠가 서로 혼용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서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해명창건설의 핵심이다.<sup>88)</sup> 아울러서 강원도 양양의 명주사를 1009년에 창건하고 이후 비로자나불을 조성한 해명(惠明)이나 강원도 원주의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1025년)의 각자(刻者)에 등장한 해명(惠明)과도 시기적으로나 활동연대로 보아 동일인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한다.<sup>89)</sup> 즉, 해명이라는 승명을 가진 자가 여기저기에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운주사 역시 그가 창건한 사찰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다른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유형원이 『동국여지지』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자가 통용되는 용례가 많고 활동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해명이 운주사를 창건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만한 자료 역시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81) 강형구, 1998, 『운주사 그 신비로운 전설·설화』, 삶과 지성, 42~74쪽.

82) 김병인, 2005, 앞의 논문, 234쪽.

83) 강형구, 앞의 책, 67쪽.

84) 황호균, 2009, 앞의 논문, 212쪽.

85) 황호균, 2009, 앞의 논문, 208쪽.

86) 김병인, 2005, 앞의 논문, 236쪽.

87) 황호균, 2009, 앞의 논문, 208쪽.

88) 황호균, 위의 논문, 217쪽.

89) 황호균, 위의 논문, 279쪽.

따라서 해명창건설 역시 운주사 창건에 대한 수많은 설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14 양희준)

## 2. 운주사 창건설 (下)

그렇다면 운주사는 누가, 언제 그리고 왜 창건했을까? 우선 창건 시기는 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 다양한 발굴을 통해서 11세기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sup>90)</sup> 위에서 제시된 도선과 해명을 제외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체는 당시 능주 지방의 호족들이다. 이는 과거 지역을 다스렸던 백제의 양식을 계승한 특징과 강력한 나주 권역의 호족의 세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sup>91)</sup>

그렇다면 운주사는 무엇을 위해서 창건되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주사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설화인 도선대사의 창건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풍수지리는 국가의 산천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 다양한 조성물을 통해서 땅의 기운을 누르거나 북돋는 비보의 개념으로 이러한 조성물들은 주로 사찰, 탑, 불상 등으로 하였다. 이러한 도선의 풍수지리, 그 중 비보(裨補)설은 고려 태조부터 고려 말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특히 도선이 신라 말 즉 당나라 말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중기 풍수지리의 대가 일행(一行)의 제자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있다.<sup>92)</sup>

이러한 점은 운주사에 세워진 수많은 석탑들의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운주사의 석탑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자연암반 위에 건축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식의 석탑은 풍수지리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慶州南山茸長寺谷三層石塔)을 비롯하여 9세기 전반을 시작으로 고려시대에 수많은 석탑이 자연암반 위에 건축되었는데 이는 도선의 비보설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sup>93)</sup> 특히 고려시대에 이러한 형식의 수많은 석탑의 건축은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견해를 통해 입증된다.<sup>94)</sup>

이러한 풍수지리와 관련된 비보설은 위에서 나왔듯이 필연적으로 도선을 국사로 삼았

90) 김병인, 2005, 앞의 논문, 234쪽.

91) 박경식, 1989, 「和順 雲住寺의 石塔에 관한 考察」, 『博物館紀要』, 5,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4~18쪽.

92) 박미선, 2015, 「도선 「행주론(行舟論)」의 전개와 운주사」, 『호남문화연구』,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2~198쪽을 참고함.

93) 박경식, 1989, 앞의 논문, 7~8쪽을 참고함.

94) 秦弘燮, 1978,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139, 한국미술사학회, 109, 138, 139쪽을 참고함.

던 고려의 중앙정부와 연관된다. 앞서 드러나듯 중앙정부는 고려 초기부터 풍수지리, 도선의 비보설을 중시하며 사찰, 탑, 불상을 통해 산천의 기운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운주사의 창건에는 지방 호족뿐만 아니라 비보설을 입각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존재한다.

또한, 운주사가 창건된 11세기는 당시 중앙집권의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주사의 창건시기인 11세기는 고려 왕조에 의한 군현개편, 즉 지방 군현의 통제가 강화되던 시기이다.<sup>95)</sup> 자립적 세력이 어느 정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화에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sup>96)</sup> 또한, 훈요십조 2조의 내용은 도선의 비보사사를 규정하는데 이는 사사(寺社)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정했다.<sup>97)</sup> 즉, 고려 초기부터 도선의 비보설에 따라서 풍수설에 부합하지 않는 사찰의 건축, 특히 사사를 규제했으며 이러한 방침은 고려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이는 중앙집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앙 왕실의 허가 없이 지방 호족들이 함부로 운주사를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선의 비보설과 같은 풍수지리와 연관 짓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운주사의 창설과 관련된 설화가 17세기 조선시대 증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도선의 창건설은 17세기 후반 혼란한 사회상에서 유행하던 그러한 도선의 비보설을 사찰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이를 끌어들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sup>98)</sup> 또한, 석탑이 독창적인 양식을 지니며 중앙과는 차별화된 백제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sup>99)</sup>과 고려 시대 활발했던 민간에서의 사찰 건립 그리고 당시 나주 등지의 강력한 호족들의 세력을 고려하면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sup>100)</sup>

그러나 이러한 양식의 차이는 주요 석탑과 석불이 12세기에서 13세기에 완성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01)</sup> 석탑과 석불 외에 기와의 경우도 밀교와 관련된 유물은 주로 12세기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12세기에 불교계가 변화로 인해 점차 관념화, 의식화 되

95) 『고려사절요』 권 3, 현종 9년 2월조.

96) 鄭濟奎, 1990, 「雲住寺의 成立과 그 佛教思想의 背景」, 『學術論叢』, 14, 단국대학교 대학원, 603~604쪽. 다만 본 논문은 중앙집권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민생의 고통과 밀교의 확대를 논한다. 그러나 김병인, 2015, 「화순 운주사의 "사명(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6~18쪽에 따르면 도선의 비보설은 밀교와 관련이 있다.

97)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계묘.

98) 김동수, 1991, 「雲住寺의 역사적 고찰」, 『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화순군, 46~47쪽; 김병인, 2005, 앞의 논문, 242~243쪽; 김병인, 2015, 앞의 논문 19~20쪽을 참고함.

99) 박경식, 2014, 「和順 雲住寺 石塔의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 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8~20쪽.

100) 박경식, 1989, 앞의 논문 14~18쪽을 참고함.

101) 황호균, 2009, 『雲住寺 資料集成』, 전남대학교 박물관, 173쪽 <표-6> 운주사 건물지 시기별 건물지 변천 현황 참조.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02)</sup> 이러한 중앙화로 인한 부담과 종교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13세기의 민란으로 이어진다.<sup>103)</sup> 즉, 사회적 혼란과 백성들의 염원이 창건 이후 만들어진 석탑과 석불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운주사는 11세기 당시 능주 지방의 호족과 왕실의 지원 및 허가 하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선과 관련된 창건설이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선의 비보설이 운주사의 창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미 창건 시기 당시부터 운주사는 풍수설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4 한태경)

### 3. 운주사의 석탑

#### 1)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 (和順 雲住寺 九層石塔)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은 보물 제 796호이다. 운주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탑으로, 커다란 바윗돌로 바닥돌과 아래층 기단을 삼고 그 위로 윗층 기단을 쌓은 후 9층에 이르는 탑신(塔身)을 세운 모습이다.

9층석탑은 1층부터 6층까지의 탑신에 두 겹의 마름모 안에 네 개의 꽃모양 문양이 있다. 이러한 수법은 운주사의 석탑에서만 볼 수 있다. 6층부터 9층까지의 탑신에는 두 겹의 마름모 안에 십자 무늬가 그려져 있다.<sup>104)</sup> 일반적으로 석탑에 새겨진 마름모 문양은 인도의 힌두교, 불교 사원 외벽에 뾰뾰하게 장식될 정도로 중요한 신앙적 도형이며 다이아몬드를 상징한다. 불교의 경전 『금강경(金剛經)』은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어 야만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05)</sup> 그러나 마름모 문양은 원시 사냥꾼들에게 삶의 원천이나 풍속, 안녕을 상징하는 표현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해 부각되는 성스러운 여성 표현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가진다.<sup>106)</sup> 운주사의 석탑에 구현된 마름모와 십자형의 문양들은 상승감이 강조된 석탑에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했던 당시 석공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sup>107)</sup>

102) 鄭濟奎, 앞의 논문, 603~604쪽.

103) 鄭濟奎, 위의 논문, 604~611쪽.

104) 고준심, 2007, 「운주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4쪽.

105) 황호균, 2009, 앞의 논문, 270쪽.

106) 선미라, 2006, 「문화기호학으로 풀어보는 운주사의 문양들」,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113쪽.

## 2)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 (和順 雲住寺 圓形 多層石塔)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은 보물 제 798호로, 탑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태에서 일반적인 석탑의 형태를 따르지 않은 특이한 모양의 석탑으로 고려 석탑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원형탑 계열의 석탑은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중국 송나라의 영향으로 고려말엽에 나타나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sup>108)</sup> 그러나 운주사의 원형탑은 탑신은 십각형이지만, 탑신과 옥개석은 모두 원형으로 조성되었고, 통돌(一石)로 제작되었기에 중국 탑과의 연관성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운주사의 원형석탑은 중국 탑과의 영향 하에서 건립된 것이 아니라 기왕에 확립된 석탑에서 기원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sup>109)</sup>

기단(基壇)은 2단의 둥근 바닥돌에 높직한 10각의 돌을 짜올리고 그 위로 16장의 연꽃잎을 장식한 돌을 올려 마무리하였다. 탑신(塔身)은 몸돌과 지붕돌이 모두 원형이고, 층마다 몸돌 측면에 2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층뿐이나 원래는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단의 맨윗돌이 윗면이 편평하고 옆면이 둥근데 비해, 탑신의 지붕돌은 정반대로 아래가 편평하고 윗면이 둥글다. 이는 상하의 조화와 안정감을 꾀하려 한 의도로 추측된다.<sup>110)</sup> (교육14 김해리)

## 4. 운주사의 불상 현황과 명명(命名)

운주사의 불상은 금동불 2분과 소조불 1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돌부처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불상은 1백여 분이 넘는다. 그 가운데 모양이 완전한 부처는 57분이고 불완전한 부처 또한 43분이 된다. 금동 여래, 보살 입상과 산재 석불 3분, 석조 불두, 소조 불두는 발굴되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중이다.<sup>111)</sup>

중요 불상은 석불과 금동 불상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불은 와불(臥佛)과

107) 박경식, 2014, 앞의 논문, 151쪽.

108) 천득엽 외, 1991,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I-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6, 대한건축학회, 152쪽.

109) 박경식, 2014, 앞의 논문, 142쪽.

110)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07980000,36](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07980000,36), (검색일자 : 2017. 09. 14.)를 참고함.

111) 이태호, 천득엽, 황호균, 2014, 『운주사』, 누리미디어, 52쪽.

그 아래 암반에 서 있는 시위불, 평지에 있는 광배를 갖춘 좌상 등 총 7분과 산등성이 자연 암반에 기대어진 석조 불상군(佛像群)이 있고, 금동 불상은 금동 여래 입상, 금동 보살 입상과 1988년 용강리 건물터에서 조사된 소조 불두편이 있다.

운주사 서쪽 계곡 산 정상에는 와불이라고 불리는 석불 좌상과 입상이 있고, 그 아래 시위불로 불리는 석불 입상이 자리한다. 이 3분의 부처는 운주사 일대의 돌부처 가운데에서 가장 전형적이며, 운주사에 관련된 설화의 중심부분이다.<sup>112)</sup> 운주사 창건 설화로 구전되는 것 중 도선의 사례로,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각종 문학 및 예술작품의 주된 소재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sup>113)</sup>

와불을 지킨다고 하여 시위불 또는 머슴 부처라 불리는 시위불은 한 쌍으로 총 두 개의 석불인데, 와불의 입구에 위치하며 산정의 암반에 불상을 조각하고 떼어 내는 공정을 마치지 못한 미완성 불상으로 여겨진다.

석불 중 『동국여지승람』권 40 능성현 불우조에 “운주사 재천불산…(중략)…우유석실 이 석불 상배이좌”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자가 주목했던 것이 연화탑 남측 방향에 위치한 석조 불감(佛龕)이다. 석조불감은 보물 79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높이 5m 규모에 팔각지붕 형태로 석불 2분이<sup>114)</sup>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붕과 벽체가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는 상태다.<sup>115)</sup>

석조 불상군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산등성의 자연 암반에 여러 상이 기대어진 형태로 무리군을 이루고 있다. 이 불상들은 위에서 열거한 불상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거나 시대적으로 늦게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석불군은 대개 앉아있는 좌상을 주존으로 하고 입상을 좌우에 협시불 성격으로 배열해놓고 있는 형태를 띠며, 주존의 경우 좌상이든 입상이든 관계없이 좌우의 입상보다 월등히 큰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이 석불군은 운주사 내부 및 외부에 걸쳐 총 6군데가 존재한다.

운주사에는 석불뿐만 아니라 발굴 조사된 금동 여래·보살 입상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건물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석불군 근처에서 출토된 공통점이 있다. 이 불상 가운데 1984년에 발견된 여래 입상의 경우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1989년에 발견된 보살 입상은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양식을 갖는다. 그런데 제작 연대와 실제 사용 연대 및 매장된 연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운주사의

112) 이태호 외 2명, 위의 책, 55쪽.

113) 정훈교, 2017, 「운주사 화순 천불산」, 『문학춘추』 99, 문학춘추사, 189~191쪽.

114) 정훈교, 위의 논문, 192쪽.

115) 이태호 외 2명, 앞의 책, 60~61쪽.

창건 시기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sup>116)</sup>

위에서 제시된 불상들은 운주사에서 대표성을 가질만한 불상들에 대한 서술이며, 운주사 불상이 설립된 배경 및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운주사의 불상들은 전형적인 전통 불상들이 지니는 정형성을 파괴한다. 일반적인 불상이 지니는 위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도 아니지만 곳곳에 군집을 이루는 불상군의 형태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117)</sup> 이러한 수많은 형태의 석불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기, 형태, 묘사가 다양하고 정확한 도상이나 모형에 근거하기 보다는 불교 신앙적 차원에 의존한 채 종교적 의지와 신념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sup>118)</sup>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독특한 양식은 미술사적 분석이나 관심보다 오히려 신비스러운 민중적 설화로 문학적 사료가 되거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10 김철은)

## 5. 운주사 칠성석(七星石)에 대한 조사

운주사 입구에서 바라보면 운주사 서편 산 중턱에 놓여져 있는 칠성석(七星石)을 볼 수 있다. 이는 운주사의 대표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일곱 개의 자연석을 원형으로 다듬어 배치했는데 그 모양은 북두칠성의 형태와 똑같다. 그래서 운주사는 일반 불교 사찰이 아니라 칠성신앙과 관련된 도교사찰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 칠성석의 직경, 원반끼리의 중심각, 각 원반 중심 간의 거리, 돌의 위치와 두께 등이 현재 북두칠성의 밝기나 위치와 똑같은 비례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칠성석의 이러한 천문학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누가, 왜, 하필 운주사 서편 산 중턱에 만들었는지, 또 천불 천탑과의 관계 등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칠성석은 우리의 고대 천문학 수준이 단순한 주술이나 무속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고인돌 무덤에 새겨진 흙의 배열 상태는 별자리와 거의 일치한다. 화순 운주사 칠성석을 보면, 바위 7개를 각각 둥그런 우너반 모양으로 깎아 다듬은 뒤에 북두칠성 꼴로 늘어놓았는데, 특이한 것은 거울에 비추

116) 이태호 외 2명, 위의 책, 90~93쪽.

117) 조대원, 2000, 「雲住寺 石佛의 彫刻的 分析에 關한 研究 : 운주사 석불의 조형미에 관하여 = (The) Sculptural features of 'Stone buddhist image' at unju temple」,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쪽.

118) 조대원, 위의 논문, 29쪽.

어 볼 때 ‘과’ 같이 뒤집힌 모습이라는 점이다. 고인돌 무덤에 별자리를 왜 새겼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당대 사람들의 죽음과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된다.<sup>119)</sup> (16 정성주)

## [운주사 참고문헌]

### 원자료

『고려사절요』

### 단행본

김동수, 1991, 「雲住寺의 역사적 고찰」, 『운주사종합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화순군

강형구, 1998, 『운주사 그 신비로운 전설·설화』, 삶과 지성

황호균, 2009, 『雲住寺 資料集成』, 전남대학교 박물관

이태호, 천득염, 황호균, 2014, 『운주사』, 누리미디어

### 논문

秦弘燮, 1978,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139권, 한국미술사학회

박경식, 1989, 「和順 雲住寺의 石塔에 관한 考察」, 『博物館紀要』, 5권,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鄭濟奎, 1990, 「雲住寺의 成立과 그 佛教思想의 背景」, 『學術論叢』, 14권, 단국대학교 대학원

천득염 외, 1991, 「운주사 다탑봉 석탑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I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6), 대한건축학회

조대원, 2000, 「雲住寺 石佛의 彫刻的 分析에 關한 研究 : 운주사 석불의 조형미에 관하여 = (The) Sculptural features of 'Stone buddhist image' at unju temple」,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인, 2005, 「운주사에 대한 해석양상의 역사적 증위」, 『역사학연구』, 24권, 호남사학회

선미라, 2006, 「문화기호학으로 풀어보는 운주사의 문양들」,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고춘심, 2007, 「운주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황호균, 2009, 「운주사(雲住寺)의 사찰(寺刹) 창건(創建)과 천불천탑(千佛千塔)의 조성(造成) 배경론(背景論)」, 『불교문화연구』, 11권, 남도불교문화연구회

박경식, 2014, 「和順 雲住寺 石塔의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김병인, 2015, 「화순 운주사의 "사명(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박미선, 2015, 「도선 '행주론(行舟論)'의 전개와 운주사」, 『호남문화연구』, 58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정훈교, 2017, 「운주사 화순 천불산」, 『문학춘추』 제99호, 문학춘추사

119) <경향신문>, “화순 운주사·칠성석 7개의 돌 각도·크기등 비례 일치 '산속의 거대한 복두칠성'”, 1999. 04. 01.

## 다산초당

1. 유배지로써의 강진, 그리고 다산의 강진행
2. 다산의 강진생활과 다산초당
3. 강진에서 꽃 핀 다산의 사상

### 1. 유배지로써의 강진, 그리고 다산의 강진행

‘유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도서 지역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구운몽을 쓴 김만중은 남해로,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로 각각 유배를 갔다. 강진이 가진 유배지로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배지로 활용되고 있던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선 전기 유배지는 경상도의 남해와 거제도, 전라도의 진도와 제주도 등지로 국한되어 있었다.<sup>120)</sup>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라도 서남해역의 섬들이 유배지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sup>121)</sup> 『조선왕조실록』에서 죄명, 죄의 경중, 죄인의 신분 등을 기준으로 서남해역의 유배 인원을 추산하면 대략 562명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 경종~정조대 유배 인원은 173명(30.78%), 순종~고종대 유배 인원은 211명(37.54%)으로 이 두 기간이 전체 유배 인원의 68%를 차지한다.<sup>122)</sup>

이들 지역이 유배지로 활용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말선초 이래로 서남해역은 왜구의 침략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 그 이후로도 을묘왜변(1555), 임진왜란(1592)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정착에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 안정을 되찾으면서 18세기에는 내륙 연안 및 도서지역에 이주민이 증가하였다. 수군 유지를 위한 둔전(屯田)은 물론이고 목장(牧場)과 송전(松田) 등이 개설되고 토지 개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앙 권력층들도 둔전·궁방전의 이름으로 토지를 개간하였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되었을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생활

120) 『중종실록』 권 4, 중종 2년 10월 13일 계미, “我國褊小, 雖置絶島, 不過濟州、珍島、南海、巨濟而已.”

121) 장선영, 2001,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188~190쪽을 참고함.

122) 김경옥, 2012,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70~71쪽을 참고함.

을 이어나간 사례는 서남해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sup>123)</sup>

둘째, 유배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적기반이 수군진에서 충당되었다. 17~18세기 기준으로 다산이 있었던 강진에는 마도진, 가리포진, 청산도진과 같은 수군진 뿐만 아니라 병마도절제사영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감독기구가 필요치 않았다. 되도록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유배지의 특성과 위의 두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강진을 비롯한 서남해역은 유배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sup>124)</sup>

다산의 노년은 ‘유배’로 점철된다. 다산이 18년간(1801~1818년) 유배생활을 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준론탕평 정책을 통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인세력을 중용하여 개혁이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서학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 대신 교화의 원칙을 적용했던 정조가 죽자 정국은 일대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산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정조의 죽음은 정치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불러왔고, ‘신유박해(신유사옥)’, ‘황사영 벽서 사건’으로 인해 다산을 비롯한 남인세력의 날개는 꺾였다.<sup>125)</sup> 노론 집안 출신이던 정순왕후는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력을 구축(拘縮)할 목적으로 노론 벽파와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신유박해를 기획한다. 당시 남인들 사이에 서학이 확산되던 상황은 정순왕후와 노론벽파에게 좋은 공격수단이었다.

순조 원년(1801년) 1월 19일 성상(聖像)과 교리 서적,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편지들을 넣어둔 정약중(정약용의 셋째 형)의 농이 발각되면서 서학에 대한 탄압이 격화되었다. 2월 10일부터 26일간 국문(鞫問)이 진행되었고, 정약중과 홍낙임 등 남인의 주요 인사이며 천주교의 지도급 인물들이 모두 처형되었다. 다산은 형 정약전(정약용의 둘째 형)과 함께 각각 장기현(長鬐縣)과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sup>126)</sup>

짧다면 짧은 1년여의 유배 중에 다산과 정약전은 다시금 서울로 압송되었다. 조선의 천주교 탄압상황을 알리고 프랑스에 군사적 요청을 하기 위한 벽서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황사영이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황사영과 정약용은 친인척 관계(조카사위)였고, 이 사건은 다산과 정약전을 제거할 명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산과 정약전은 황사영과 연락이 끊긴지 오래였고, 접촉할 방법도 없었으며, 벽서에 관계할 방법도 전무했다.<sup>127)</sup> 국문의 과정에서 두 형제와 황사영의 정치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자 그해 11월 다산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보내져 유배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

123) 김경옥, 위의 책, 72~74쪽을 참고함.

124) 김경옥, 위의 책, 75~78쪽을 참고함.

125) 변주승, 2001, 「신유박해의 정치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16, 한국사상사학회, 93~94쪽을 참고함.

126) 박석무, 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316쪽.

127) 박석무, 위의 책, 359쪽.

## 2. 다산의 강진생활과 다산초당

강진으로 온 뒤 두 사람이 눕기도 힘든 동문 매반가 골방에서 4년, 부처님과 함께 지낸 보은산방에서 2년, 그리고 이학래의 집에서 2년, 모두 8년 동안 이곳저곳을 옮겨지며 지낸 다산은 1808년 봄, 47세가 되던 해에, 당시 강진에 터를 잡고 살던 해남 윤씨 가문(윤단, 윤규로)의 초빙으로 다산초옥(다산초당)으로 배소(配所)를 옮겨 본격적인 학문연구를 시작한다.

강진에 유배 온 이후 저술과 강학에 적합하며, 원포(園圃)를 가꾸어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다산에게 해남 윤씨 일가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sup>128)</sup> 바로 이곳에서 일표이서(一表二書)로 일컬어지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를 비롯한 500여권의 저술이 이루어졌다.

다산초당이 있는 굴동마을은 어쩌다 고기잡이배나 갯벌에서 조개잡는 아낙들이 들렀다가는 이름 없는 산기슭이었다.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름 없는 이곳이 귀라리(貴羅里)에 살던 윤단의 할아버지 윤취서(尹就緒, 1688~1766)의 눈에 띄어 굴나무가 심어졌다. 그래서 굴동마을이 됐다. 이후 뒷산 채동에다 산정을 짓고 ‘다산초옥(茶山草屋, 혹은 다산서옥)’이라 편액을 붙이니 이것이 다산초당의 시초가 된다.<sup>1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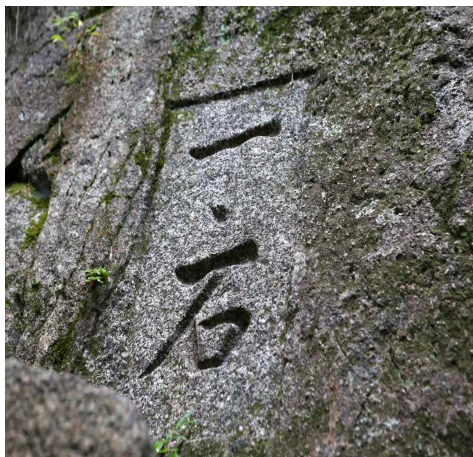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 (국립중앙박물관)

다산은 다산초당으로 옮긴 뒤 직접 대(臺)를 쌓고, 못을 파고, 꽃나무를 열 지어 심고, 물을 끌어다 폭포를 만들었으며, 동암(송풍암)이라고도 불리며 다산이 저술에 필요한 책을 갖추고 기거하며 손님을 맞았던 곳·서암(윤종기 등 18인의 제자가 기거하던 곳) 두 암자를

128) 차벽, 2010, 『다산의 후반생』, 돌베개, 215~217쪽을 참고함.

129) 차벽, 위의 책, 211쪽.

지었다.<sup>130)</sup> 노후로 인해 붕괴되었던 다산초당은 1957년에 복원<sup>131)</sup>되었고 그 후 동암(1976년)과 서암(1975년)이 복원되었다. 이외에도 다산이 석벽에 새겼다는 ‘정석(丁石)’ 두 글자,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전,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 연못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석가산 등 다산사경이 있으며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있다. 천일각은 흑산도에 있는 정약전과 고향이 그리울 때 다산이 마음을 달랬던 곳으로 유배 당시에는 없었으나 1975년 복원 과정에서 새롭게 지어졌다.



정석과 서암(문화재청)

다산초당에서의 학문적 성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산과 정약전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산의 일생에서 정약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각별한 사이였다. 비슷한 수준의 학문적 능력, 진보적 사고, 그리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개혁을 이뤄내고 싶었던 욕구를 가진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가 형제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sup>132)</sup> 정약전을 생각하는 다산의 마음은 1803년 보은산에 오른 후 지은 '9월 9일 보은산 절정에 올라 우이도를 바라보다'라는 시에 잘 드러난다. 그 글을 다 옮길 수는 없으나, 다산은 보은산에서 보이는 흑산도의 우이섬(정약전의 유배지)과 자신이 서 있는 형제봉을 보며 느끼는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sup>133)</sup>

다산은 감수를 위해서 인편으로 자신의 초고를 정약전에게 보냈다. 그때면 정약전은 방

130) 박석무, 앞의 책, 471~472쪽을 참고함.

131) 해남 윤씨들을 주축으로 한 다산유적보존회가 1957년 기와집의 형태로 변형·복원하였다. 강진군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다산초당의 기와지붕을 초가지붕으로 교체 및 복원할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32) 박석무, 앞의 책, 365쪽.

133) 박석무, 위의 책, 443쪽.

을 깨끗이 쓸고 정약용이 보내온 원고를 보았다. 변변한 참고 서적이 있을 리 만무했던 흑산도에서 그가 정약용에게 보낸 답변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논어난』이나 『자산역간』등의 글은 다산에게 보내는 정약전의 답서를 모은 것이다.

다산은 1808년 다산초당을 꾸미고 은밀하게 제자를 모았다. 다산의 학식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져 글을 부탁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거나 자제의 교육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강진 유배 때 다산을 따르던 제자들은, 초당 주인 윤단의 손자 여섯 명을 포함하여 다신계(茶信契) 계원 18명(다산학단)<sup>134</sup>과 백운동 이석희의 아들 이시현, 오정해, 정사육, 황지하, 윤정기 등 인척 및 양반 자제들, 읍성 시절 제자들과 혜장으로 연결된 초의 등의 스님들이었다. 대략 40여 명 정도지만 중간 탈락자와 이학래 이외 읍성 시절 제자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다산초당에서 교육받은 제자들은 20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35</sup>

다산초당 초기부터 강학과 저술이 병행되었다. 읍성 시절부터 저술을 도와 온 이학래가 다산의 지시를 받아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고, 시간이 지나 제자들의 특성이나 학문 수준이 드러날 때 즈음엔 그에 맞는 강학과 함께 저술에 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때로는 강학 내용이나 질문 내용을 이학래가 받아 적어 이를 다시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1809년의 『시경강의』, 1810년의 『시경강의보』, 1812년의 『춘추고정』 등이다. <sup>136</sup> 그 후로 1817년 『경세유표』, 1818년 『목민심서』, 『국조전례고』이 완성되었고, 해배(解配)가 되고 1년 뒤인 1819년 강진에서부터 저술해오던 『흙흙신서』가 완결되었다.<sup>137</sup>

### 3. 강진에서 꽃핀 다산의 사상

강진에서 이룩한 다산의 학문적 업적은 썩은 세상에 대한 한없는 분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통해 썩은 세상을 치유할 방책을 마련하여 강진유배 초기에는 6경4서를 통한 새로운 경학연구로 인간 사유체계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후반기에는 과학기술론과 같은 경세학에 집중하였다.<sup>138</sup>

134) 송재소, 2008, 「다산학단(茶山學團) 연구(研究) 서설(序說)」, 『다산학』 12, 다산학술문화재단, 7쪽 : 다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었거나 다산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인사들로서 다산학의 형성과 계승, 발전에 기여한 일군의 학자를 지칭한다. 다산학단이란 명칭은 임형택(林煥澤)교수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어 지금은 일반화 된 용어이다.

135) 차벽, 앞의 책, 221쪽.

136) 차벽, 위의 책, 221~222쪽을 참고함.

137) 차벽, 위의 책, 232쪽.

다산은 ‘성품만 제대로 기르고 마음만 확고하게 지니면(存心養性) 만사가 해결 된다’고 여기는 주자학을 비판하고, 행위와 실천을 통한 성(性)의 현실화를 설파하였다. 그는 이미 썩은 세상에서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性) + 행(行) = 덕(德)’이라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제시하였다.<sup>139)</sup>

다산이 명확하게 세운 이론의 다른 하나는 썩은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개혁의 미비, 차별적 신분제도로 인한 인재 발굴의 어려움,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지 못하는 법제의 불비(不備) 때문에 세상의 부패가 가속화되었다고 보았다. 그가 저술한 일표이서의 책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이었던 셈이다. 다산초당에서 꿈꾸어온 다산의 염원, 깨끗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의 뜻은 방대한 저서 속에 담긴 사유체계의 변화, 법제의 개혁, 기술개발이라는 매우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론으로 마무리되었다.<sup>140)</sup>

(14 홍택범, 15 오정미, 15 임지영)

---

138) 박석무, 앞의 책, 495쪽.

139) 박석무, 위의 책, 503쪽.

140) 박석무, 위의 책, 504쪽.

# 백련사

1. 백련사의 연혁과 성쇠
2. 백련사와 다산, 그리고 혜장선사

## 1. 백련사의 연혁과 성쇠

백련사(白蓮寺)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사찰로, 고려시대까지 ‘만덕산 백련사’라 불렸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만덕사(萬德寺)’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백련사’로 개명되었다.<sup>141)</sup> 백련사에 대한 사적은 다산의 「만덕사지」나 윤희(尹淮)가 저술한 「팔도지리지」 등에 나타나 있다.

백련사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839년(문성왕 1)에 무염(無染)이 창건한 고찰이다. 고려



백련사 대웅전(문화재청)

련사의 명확한 창건 또는 제1차 중창(重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창 후 원묘국사 요세가 백련결사(白連結社)운동<sup>142)</sup>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백련사는 요세의 11대 제자인 무외대사(無畏大師)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번창하였다.

이후 백련사가 대대적으로 크게 중창한 것은 조선 초 세종 때로, 당시 왜구의 침략 때문에 여러 불전들이 훼손되자 중창을 시작하였고 이로

141) 손신영, 2017,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에 대한 고찰」, 『강좌 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한국미술사연구소), 46쪽.

142) 원묘국사 요세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자와 신도들이 참여하여 불교 개혁·불교 선양에 기여한 신앙운동이다.

인해 한층 장대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절 주위에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행호토성(行乎土城)이라고 한다. 이 토성은 현재에도 존재하며, 따라서 백련사는 그 당시 쌓은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후인 1760년(영조 36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 백련사의 모든 건물이 불탔고, 그다음 해인 1761년에 여러 건물의 건설을 시작해 1762년에 완공한 것이 백련사의 4번째 중창이라 할 수 있다.<sup>143)</sup> 4번째 중창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어 현재 백련사의 배치와 불전들은 1762년에 재건된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백련사의 현존하는 당우(堂宇)<sup>144)</sup>로는 대웅전, 시왕전, 나한전, 만경루, 칠성각,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는데, 「만덕사지」와 비교해보면 19세기 이전에는 더욱 많은 불전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45)</sup> 또한 「만덕사지」에 의하면 백련사는 본래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대부분이 퇴락되어 사라지고 없다. 기록의 명칭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재 백련사의 주요 불전(대웅보전, 만경루·시왕전·나한전)이 배치된 영역이 과거 동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백련사의 불전은 중건과 퇴락 끝에 19세기 초반 당시에 이미 이름만 전하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46)</sup>

## 2. 백련사와 다산, 그리고 혜장선사

백련사는 강진에서 유배생활 중이었던 다산과 대흥사 주지로 있던 혜장선사가 차를 매개로 하여 종교와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주고받았던 사찰로 유명하다. 다산이 쓴 『다산계절목』에 의하면, “신유년(1801) 겨울에 강진 유배지에 당도해서 동문 밖의 주가에 머무는 곳을 잡았다가 을축년(1805) 겨울에는 보은산방으로 옮겼고, 병인년(1806) 가을에는 이학래의 집으로 옮겼으며, 무진년(1808) 봄부터 다산에 우거했다”고 한다. 이 중 ‘보은산방’은 고성사의 다른 이름으로, 백련사에 딸린 암자였다. 다산이 이곳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혜장선사의 배려 덕분이었다.<sup>147)</sup>

143) 문무왕, 2017, 「강진 백련사의 역사와 사상-원묘 요세의 생애와 사상연구」, 『강좌 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회(한국미술사연구소), 96~97쪽을 참고함.

144) 정당(正堂)과 옥우(屋宇)라는 뜻으로, 규모가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절에서는 예배의 주대상이 되는 부처님과 보살, 신장 등을 모신 전각에 해당한다.

145) 손신영, 앞의 논문, 50쪽.

146) 손신영, 위의 논문, 53쪽.

147) 김태희, 2012, 「다산과 강진: 유배객 정약용, 강진에 살다 - 강진의 “다산실학 4대 성지”를 찾아서」, 『다산과 현대』 5,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355~356쪽을 참고함.

1805년 봄에 처음 만난 다산과 혜장은 서로를 학문적 상대로 인정했고, 이후에도 교류를 이어갔다. 다산에게 혜장은 강진 유배 기간에 가장 깊은 정을 나누었다고 할 수 있는 승려이다. 혜장은 다산에게 주역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고, 다산은 혜장에게서 선(禪)과 차를 공부했다. 다산은 이를 통해 간혀 사는 답답한 삶에서 놓여나는 길을 배우고, 유배지에서 고독함과 불안함을 위로받았다.<sup>148)</sup> 또한, 혜장은 다산을 위해 백련사에 있는 고성사라는 암자에 공간을 내주었고, 이 덕분에 다산은 고성사에 한동안 머물며 「주역」 공부를 할 수 있었다.<sup>149)</sup>

다산과 혜장의 두터운 교류의 자취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정리한 서첩 『견월첩(見月帖)』에 잘 드러난다. 『견월첩』의 시에서 다산은 『시경』, 『서경』, 『역경』을, 혜장은 『화엄』, 『능엄』, 『원각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또한 『견월첩』의 다른 부분에서는 혜장이 다산에게 『화엄경』의 제목 글씨를 부탁하고, 다산은 혜장에게 『능엄경』을 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산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능엄경』을 빌려 읽는 등 불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산은 혜장과 『주역』에 대한 토론을 벌이면서 동시에 불경 공부도 병행했던 것이다.<sup>150)</sup> 이전에도 다산은 불교와 인연이 있었지만, 혜장을 만난 이후에는 그 인연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산과 혜장의 교류는 각별하였으나, 혜장이 대둔사(大苾寺)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811년 혜장은 가을에 병이 들어 입적(入寂)하였다. 다산은 혜장과 인연이 맺어진 지 6년 5개월 만에 그와 영결하게 되었지만, 혜장과의 각별한 교류는 유배생활 중인 다산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다.<sup>151)</sup>

이후 다산은 승려 중 시를 쓰는 후진이 끊겨 혜장의 뒤를 이을 이가 없는 것을 애석해 하며 초의에게 소질이 있으니 혜장의 뒤를 이을 것을 권했다. 초의는 기대에 부응하여 우수한 실력을 보였고 다산은 그를 아꼈다. 이와 같이 다산은 유배지에서 혜장을 비롯한 여러 승려와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다산은 불교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산이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유학자였다.<sup>152)</sup> 그가 여러 스님들과 교류를 하고 사상적으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다산

148) 한승원, 2008, 「창간기획: 다산과 강진: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다산과 현대』 1,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83쪽.

149) 정민, 2008, 「다산과 혜장의 교류와 두 개의 『견월첩(見月帖)』」, 『동아시아문화연구』 4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29쪽.

150) 정민, 2012, 「다산 타신 250주년 특집: 다산 逸文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류와 강학」, 『한국한문연구』 50, 한국한문학회, 113쪽.

151) 김봉남, 2017, 「茶山 詩文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 고찰」, 『대동한문학』 51, 대동한문학, 192~193쪽을 참고함.

의 학문적 스펙트럼이 넓었기 때문만은 아니라, 조선 후기의 불교가 유교 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해 충효와 같은 성리학적 명분을 수용하고, 또한 성리학적 가치에 입각한 사상과 이념을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했다.<sup>153)</sup> (15 김은영)

## [다산초당 & 백련사 참고문헌]

### 원자료

『중종실록』

### 논문

- 변주승, 2001, 「신유박해의 정치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16, 한국사상사학회  
 장선영, 2001,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박석무, 2003,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송계소, 2008, 「다산학단(茶山學團) 연구(研究) 서설(序說)」, 『다산학』 12,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민, 2008, 「다산과 혜장의 교유와 두 개의 『견월첩(見月帖)』」, 『동아시아문화연구』 4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한승원, 2008, 「창간기획: 다산과 강진: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다산과 현대』 1,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차벽, 2010, 『다산의 후반생』, 돌베개  
 김경옥, 2012,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김태희, 2012, 「다산과 강진: 유배객 정약용, 강진에 살다 - 강진의 “다산실학 4대 성지”를 찾아서」, 『다산과 현대』 5,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정민, 2012, 「다산 타신 250주년 특집: 다산 逸文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연구』 50, 한국한문학회  
 김봉남, 2017, 「茶山 詩文에 나타난 불교에 대한 인식 고찰」, 『대동한문학』 51, 대동한문학  
 문무왕, 2017, 「강진 백련사의 역사와 사상-원묘 요세의 생애와 사상연구」, 『강좌 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한국미술사연구소)  
 손신영, 2017,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에 대한 고찰」, 『강좌 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한국미술사연구소)

152) 김상홍, 2002, 「다산학이 초의선사에게 끼친 영향」,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516쪽.

153) 김봉남, 앞의 논문, 168쪽.

# 국립나주박물관 & 반남고분군

1.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2. 주요유물
3. 주요 유물
4. 마한
5. 반남 고분군의 무덤양식

## 1.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며 호남지역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광역수장고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3년 개관하였다.



국립 나주 박물관 전도 (나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나주박물관은 통사적인 전시를 기초로 하되 마한 시기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sup>154)</sup> 이는 기존의 통사관 전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박물관을 개관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2. 주요 유물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물부터 고려시대의 청자구름봉황무늬대접에 이르는 폭넓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국보 제295호인 금동관, 해남 만의총 1호분에서 출토된 상서로운 동물모양 토기,

154) 김재홍, 2016, 「박물관 속의 고대사」, 『한국 고대사연구』 84, 한국고대사학회, 224쪽.

은제 관꾸미개, 봉황무늬칼자루끝장식 등이 주요 전시유물이다. 금동관은 백제의 공주도읍기에 영산강 지역의 수장묘(首長墓)인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현존하는 백제 관 중 모관(상투에 씌우는 작은 고깔모자 형태의 관)과 대관(형태적으로 머리띠가 바탕을 이루는 금속제 관)이 결합된 유일한 예로서 금도금한 구리판을 오리고 붙여 화려한 형태를 보여준다.<sup>155)</sup>

### 3. 전시 내용

나주박물관은 전시동, 산책로, 정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전시동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과 특별 전시실로 이루어져있다.

제1전시실은 영산강 유역의 문화를 시기별로 ①역사의 여명 ②마한의 형성 ③영산강 유역의 고분문화, ④강의 길, 바다의 길이라는 테마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의 ‘역사의 여명’관에서는 영산강 유역에서 사람들이 터를 잡으며 사용한 도구들을 전시하고 있다. ‘마한의 형성’관에서는 항아리나 목걸이 등 마한시대 사람들의 용품을, ‘영산강 유역의 고분문화’관에서는 무덤 내의 부장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독널무덤의 발전과 소멸을 통해 마한지역의 성쇠를 확인할 수 있다. ‘강의 길, 바다의 길’관에서는 고려시대, 영산강 뱃길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모습을 침몰한 배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2 전시실은 ‘고고학의 세계’와 ‘보이는 수장고’로 구성되어 있다. ‘고고학의 이해’관에서는 영암 자라봉 고분 토층단면을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고분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보이는 수장고’관은 직접 수장고를 살필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sup>156)</sup> 이외에도 박물관에서 마한 문화축제나 마한과 백제의 음악 등의 강연과 같은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3 김성대)

### 4. 마한

#### 1) 마한의 역사

마한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한강과 충청, 전라 지역에 분포했던 정치

1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자 : 2017. 09. 10.).

156) 국립나주박물관, <http://naju.museum.go.kr/html/kr/>, (검색일자 : 2017. 09. 10.).

집단을 의미한다.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 따르면,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중 강한 소국의 지배자를 신지, 읍차라 불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한의 소국들은 중심 읍락인 국읍과 다수의 읍락으로 구성된 성읍으로 이루어진 체제 혹은 족장(군장)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57)</sup> 즉, 옛 문헌과 고고학 연구에서는 마한의 소국을 고대 국가 단계로 발전하기 전인 복합사회, 즉 족장 단계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sup>158)</sup> 한편, 마한에서는 국읍과 성읍과 구별되는 정치체제인 별읍이 국읍, 성읍과 함께 소국을 구성하였다.<sup>159)</sup> 국읍과 성읍은 교역 및 물자의 재분배, 군사·방어 활동 등을 주도하면서 주변 읍락에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별읍은 종교적인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sup>160)</sup> 마한에서는 대개 권역별로 대형 취락에서 철기를 생산하였고, 이 철기들은 대형 취락에서 소형 취락으로 유통되었다.<sup>161)</sup> 목지국의 위치로 추정되는 영산강 유역에서는 마한 취락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의 마한 사회에서는 철제 농기구 대신 목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이 지역에서 철제 농기구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은 마한 사회가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 설명되기도 한다.

3세기 전반까지 마한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소국은 목지국이었으며, 마한은 중국과 가야 등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였다. 3세기 후반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백제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경기, 충청도 지역의 마한 소국들은 백제에 편입되었고, 4세기 경 근초고왕에 의해 대다수 국가들은 백제에 복속되었다.<sup>162)</sup> 그러나 영산강 유역에 존재하는 대형옹관분이 6세기 무렵까지 조영된 점에서 고고학자들은 마한이 6세기를 전후하여 백제에 완전 복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63)</sup> 백제의 마한 병합 시기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3세기 초의 고이왕대설이 있다. 고이왕대설은 <삼국지>의 동이전 기사에 주목한 견해로 목지국 주도의 한 연합 세력이 중국 군현 세력에게 패배하자 백제가 마한 소국을 점령했다는 설이다.<sup>164)</sup> 이 설은 고이왕의 관제정비 정책이 백제가 목지국 세력을 해체시키고 마한의 중심세력이 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서(晉書)』사이전(四夷傳) 마한조

157) 김승욱, 2014,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35쪽.

158) 김승욱, 위의 논문, 35쪽.

159) 『후한서』 권 85, 동이열전 75 한전,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 [魏志曰 諸國各有別邑 爲蘇塗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蘇塗之義 有似浮屠]”

160) 김두진, 1985,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歷史學會 편), 一潮閣, 107~112쪽을 참고함.

161) 김승욱, 위의 논문, 51쪽.

162) 문안식, 2014,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제국 편입 과정-서남해 지역 및 연안도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113쪽.

163) 成洛俊, 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 研究」, 『百濟文化』 15, 60쪽.

164)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95쪽.

(馬韓條)의 태강 원년(280), 2년·7년·10년에 마한이 지역 특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백제가 3세기에 마한 연맹체를 해체했다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165)</sup> 둘째로 책계왕대가 있다. 이는『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百濟本紀)에서 책계왕 3년~12년의 기사가 집단누락 된 점에 주목한 견해이다. 마한의 사신 파견이 태희 원년을 끝으로 단절 되는 것을 근거로 학자들은 책계왕 5년(290)에 백제가 마한을 병탄하고, 이듬해 백제가 마한의 원산성과 금현성을 항복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의 기사 누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삼국지(三國志)』의 마한과『삼국사기(三國史記)』의 마한을 동일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166)</sup> 마지막으로 근초고왕대가 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통전(通典)』의 “진(晉)나라 이후 여러 나라를 병탄하여 마한 옛 땅에 의거하였다.” 구절을 근거로 마한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에 의해 3~4세기 사이에 병합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sup>167)</sup> 그러나 근초고왕이 병합한 영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목지국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마한이 4세기경에 완전히 복속되었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 2) 마한의 고고학적 특징

한(韓) 또는 마한(馬韓)의 출현은 점토대토기 및 세형동검을 표지로 하는 고고학적 사료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68)</sup> 기원전 2세기에는 새로운 묘제인 주구묘가 축조되기 시작했고 주거지들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에 마한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한은 건마국, 감해국, 염로국 등 적어도 3개 이상의 정치체제가 존재했다. 건마국은 금마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감해국은 함라와 함열 일대를, 염로국은 장신리와 송학동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 소국이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169)</sup>

기원전 1세기에 본격적으로 철기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마한과 직접 관련된 문화는 철기문화이며, 마한 성장의 내부적 요인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철기문화의 발달로 보기도 한다. 마한의 초기 유적으로는 다송리, 평장리, 오룡리, 서두리 유적이 있으며, 후기 유적에서 철기가 공반된 유적은 신동리, 계문동 유적 등이 있다.<sup>170)</sup>

165) 김기섭, 위의 논문, 96쪽.

166) 김기섭, 위의 논문, 96쪽.

167) 김기섭, 위의 논문, 97쪽.

168) 박순발, 2001, 「마한 대외교섭의 변천과 백제의 등장」, 『백제연구』 3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쪽.

169) 김규정, 2016, 「마한의 성장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59쪽.

170) 위의 책, 63쪽.

전남지역에서는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 기록된 마한 54소국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분포하였다. 이들 소국은 대부분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지석묘가 밀집 분포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마한 소국의 위치를 청동기시대에 조성된 지석묘의 분포 상태를 통해 비정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청동문화를 영위한 집단이 주체적으로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한 사실을 고려하면 지석묘의 분포 상태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남지역의 마한 소국은 삼국시대의 주거지를 비롯한 취락의 조사 사례를 통해서도 비슷한 숫자가 확인된다. 전남지역 소국에는 1~2개(대부분 1개)의 대형 취락을 중심으로 복수의 중형 취락이 분포하고, 이들 취락의 주변에 많은 숫자의 소형 취락이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락 분포를 통해 전남지역 소국 후보지로 17곳의 권역 설정이 가능하며, 해발 고도가 낮은 저지대를 제외하면 13~15개의 소국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71)</sup>

또한 마한시대의 소국의 범위를 백제 사비기의 지방통치방식인 방-군-성제(方-郡-城制)에서 방 밑의 군의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비기의 군은 웅진시대의 담로가 변모한 것이며, 전남지역에는 모두 15군이 존재한 것으로 볼 때 그 전 단계의 마한 소국은 15국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전남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는 A.D. 100~250년 사이에 한랭기로 접어들어, 냉해가 극심해지고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전남을 비롯한 삼한지역의 사람들은 한랭기가 초래한 가혹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철제 도구의 발전과 도작농경의 확대 및 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 발전을 가속하였다. 그 와중에 점차 지역별로 정치적 구심체가 등장하고 소국 간의 연맹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삼한사회의 수장으로 대두한 인물이 목지국의 진왕(辰王)이었다. 학계에서는 진왕이 삼한의 여러 소국과 종주, 부용(宗主·附庸) 관계를 토대로 군현과의 대외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진왕의 영향력은 마한 중심의 교역권이 붕괴되고, 철기 보급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새로운 교역의 대상과 중심지가 대두되면서 약화되었다. 삼한 각지의 토착세력은 점차 목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였다.<sup>172)</sup> (16 김채림, 안채연)

171) 문안식, 2014, 「특집 :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 제국 편입 과정 - 서남해지역 및 연안도서를 중심으로 -」,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115쪽.

172) 문안식, 위의 논문, 115~117쪽을 참고함.

## 5. 반남 고분군의 무덤양식

### 1) 반남 고분군의 개관

반남 고분군은 영산강 지류의 자미산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대안리에 12기(基), 신촌리에 6기, 덕산리에 10기 총 30여기가 확인된다. 반남 고분군에서는 독특한 대형옹관, 금동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옹관이라는 형식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예가 없으며, 고분의 규모와 출토된 금동관 금동신발은 반남 고분군이 그 당시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반남 고분군은 영산강 지역의 마한 토착세력의 고유한 묘제(墓制)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3)</sup> 반남 고분군은 시기에 따라 여러 형식을 띤다. 3~5세기까지는 대형옹관고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5~6세기경에는 돌방무덤 형식도 보인다. 세기별 무덤형식 차이는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옹관묘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3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마한의 주도국이었던 목지국이 낙랑군의 공격을 받으며 쇠퇴하자, 영산강 유역에 신미국을 중심으로 한 침미다례 즉 신미제국 연맹체가 주요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옹관묘는 옹관의 절반을 지하에 묻는 반지하식이었다. 그러나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벌함에 따라 점차 침미다례는 쇠퇴하게 되고, 내비리국(內卑離國)이 마한의 주요세력이 되었다. 이때부터 옹관묘는 점차 지상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규모도 더욱 커졌다.

백제에 점령된 마한(내비리국)과 백제와의 관계는 반남 고분군의 무덤 양식과 유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옹관묘의 거대한 분구는 무덤 안의 세세한 구역분획에 따라 설계되었다. 도랑 등의 흔적으로 추측해보면 옹관을 배치할 장소를 미리 정해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덤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비리국이 실질적으로 백제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커다란 공사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sup>174)</sup> 출토된 유물들도 내비리국이 백제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무역을 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가야의 유공광구소호와 일본의 경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백제지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유물이다. 마지막으로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왕관은 백제의 왕관과 그 형식이 상이하다.<sup>175)</sup> 또한 5세기 초중반 경엔 백제가 고구려의 남

173) 정기진, 2001, 『榮山江流域 甕棺墓의 變遷과 葬制』,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역사문화학회, 67쪽.

174) 이정호, 1996(a),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의 분류와 변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22, 한국상고사학회, 52쪽.

175) 김주성, 1999, 「역사교육에서의 영산강 유역의 대형 옹관묘사회」, 『초등사회과교육논총』, 전북초등사회과교육학회, 138쪽.

진정책에 밀려 웅진천도를 하였다. 천도에 따른 중앙의 혼란과 권력의 부재는 마한의 소국이 세력을 키우기에 더욱 좋은 환경이 되었다.『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내비리국은 국력에 큰 도움이 되는 철강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철야현(鐵冶縣)은 본래 백제의 實於山縣으로 경덕왕이 개명 하여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서의 철야현은 나주군과 인접한 철의 생산지이다. 내비리국은 4세기 경 근초고왕에 의해 정복당하여 백제의 종속적 위치에 놓였지만, 그 안에서 독자적인 외교를 하는 독립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76)</sup>

## 2) 영산강 옹관고분의 시기별 특징

영산강유역의 옹관고분은 제1기부터 분구가 축조되었고 전용의 옹관이 제작되며 분구의 중앙에 옹관을 안치하는 단독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제2기 이후의 대형분구 고분은 다장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다장-> 단독장’이라는 일반적인 등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한이라는 공통적인 문화배경을 기반으로 고대국가체제를 이룬 백제지역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강유역에서는 이미 3세기부터 토광묘로 대표되는 북분과 적석총계의 남분이 합쳐진 형태의 고분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백제와 마한이 묘역을 공유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7)</sup> 제 3기가 되면 옹관고분에서는 금동제품 등 이질적인 위세품(威勢品)이 다수 부장된다. 이러한 금동제품은 백제 세력에 의해 제작되어 다음 각 지방으로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산 제품의 분배는 새로 편입된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고 백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sup>178)</sup> 한정된 고분에 대도가 지속적으로 부장된 점과 위세품, 무기류 등의 부장이 석실분축조 이후까지 지속되는 점은 영산강 유역과 백제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밀접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토착지배세력의 자발적 문화 수용은 독자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석실분이 등장한 이후 영산강 유역에서 백제의 실질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토착 세력이 자연스럽게 해체된 원인으로도 여겨진다.<sup>179)</sup>

176) 이도학, 2013,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백제문화 49권 0호』,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23~124쪽을 참고함.

177) 이정호, 1997, 「全南地域의 甕棺墓 - 대형옹관고분 변천과 그 의미에 대한 시론」, 『湖南考古學報』 6, 호남고고학회, 72쪽.

178) 이정호, 1996(a), 앞의 논문, 75쪽.

179) 이정호, 1997, 앞의 논문, 73쪽.

### 3) 대형옹관고분

반남 고분군(潘南 古墳群)에는 대형옹관고분 수십 기가 분포한다. 내부 매장시설은 4호분과 같이 석실인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고분들은 여러 개의 옹관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목관(木棺)이 섞여있을 가능성도 있다.<sup>180)</sup>

대형옹관고분이란 지상에 분구를 쌓고 분구 속에 시신을 안치한 커다란 옹(甕: 항아리)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고구려의 적석총, 백제의 석실분, 신라의 적석목곽분, 가야의 석곽묘 등과 달리 영산강 유역에만 분포하던 독특한 묘제이다.<sup>181)</sup> 영산강 유역에서 처음 등장한 고분은 3세기 말경의 목관고분과 옹관고분이다. 3세기경의 옹관고분은 옹관 절반을 지하에 묻는 반지하식 방식이었으며, 4세기 중반에는 분구를 쌓은 후 정상부에 흙을 파 옹관을 안치하는 지상식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였다. 옹관고분은 영산강 중·하류에 주로 분포하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목관고분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

### 4) 무덤 양식의 변화

5세기 말에는 대형옹관고분이 쇠퇴하고 횡혈식석실분(굴식돌방무덤), 전방후원형 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강하게 드러나는 토착적 요소는 이 지역의 고대세력이 능동적으로 횡혈식석실분을 받아들이며 사회발전을 도모했음을 암시한다. 6세기 중엽에 나타나는 석실분은 백제 세력이 진출하며 토착세력의 옹관묘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백제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더라도 토착세력을 완전히 와해시키지 못했음을 드러낸다.<sup>182)</sup>

영산강 유역 고분은 다양한 주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다리꼴과 전방후원형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또한 분묘에서 고분으로 발전되면서 수평적·수직적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때 수평적인 확장은 기존 무덤에 추가로 매장시설을 하면서 옆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수직적인 확장은 기존 무덤의 봉분이 추가로 매장시설을 하면서 봉분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한 봉분에 여러 매장시설을 설치하거나 매장시설이 지상식이라는 점은 영산강 유역 고분의 또 다른 특징이다.<sup>183)</sup>

180)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26406](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26406), (검색일자 : 2017. 09. 11.).

181)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3.05130000.36](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3.05130000.36), (검색일자 : 2017.09. 11.).

182) 홍보식, 2005, 「영산강유역 고분의 성격과 추이」, 『호남고고학보』 21, 호남고고학회, 132쪽.

## 5) 전방후원형고분

한국 내의 전방후원형 고분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3년 전방후원형 고분이 한국에서도 분포하며, 이 고분 유형이 한국에서 기원하여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주장은 실측조사 결과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으나 다시 전남 지역 각지에서 전방후원형 고분이 발견되며 그 기원 및 실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sup>184)</sup>

전남지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은 3세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장고분 및 전방후원분의 기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들은 장고분의 축조세력이 옹관고분을 축조한 세력과 같이 전남지역에 공존하였으나,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3세기 중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집단이 동일한 계통이었기에 상호교류가 지속되어 4-6세기대의 왜적(倭的)인 성격을 띤 장고분은 집단 간 인적교류의 산물로 보고 있다.<sup>185)</sup>

전남지역에 나타나는 전방후원형 고분은 광주, 영암, 함평, 영광, 해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이는 전방후원분이 장기간 축조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한 두세대 정도 축조되다가 토착묘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되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방후원형 고분의 매장주체는 모두 석실이며 옹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축조가 석실분 등장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거나 석실분 등장 이후 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방후원형 고분은 석실분의 등장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의 석실은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옹관고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출현 시기나 평면형태 등은 일본 북부구주지역과 상통하는 면이 많다고 지적된다.<sup>186)</sup> 즉, 이 지역의 토착세력은 전방후원형 고분이 일본 고분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정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가 이 지역 토착세력이 전방후원형 고분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sup>187)</sup>

(14 김우철, 정치외교학 14 권기현, 16 임채은)

183) 최성락, 2009,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의 검토」, 『호남고고학보』 33, 호남고고학회, 126쪽.

184) 이정호, 1996(b), 「전방후원형 고분의 연구사 검토」, 『湖南考古學報』 4, 호남고고학회, 143쪽.

185) 이정호, 1996(b), 앞의 논문, 145쪽

186) 이정호, 1996(b), 앞의 논문, 146쪽

187) 이정호, 1996(b), 앞의 논문, 147쪽

## [국립나주박물관&마한&반남 고분군 무덤양식 참고문헌]

### 단행본

김두진, 1985,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歷史學會 편), 一潮閣

### 논문

成洛後, 1983, 「영산강유역의 甕棺墓 研究」, 『百濟文化』 15

이정호, 1996(a),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의 분류와 변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22, 한국상고사학회

이정호, 1996(b), 「전방후원형 고분의 연구사 검토」, 『湖南考古學報』 4, 호남고고학회

이정호, 1997, 「全南地域 의 甕棺墓 - 대형옹관고분 변천과 그 의미에 대한 시론」, 『湖南考古學報』 6, 호남고고학회

김주성, 1999, 「역사교육에서의 영산강 유역의 대형 옹관묘사회」, 『초등사회과교육논총』, 전북초등사회과교육학회

박순발, 2001, 「마한 대외교섭의 변천과 백제의 등장」, 『백제연구』 3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홍보식, 2005, 「영산강유역 고분의 성격과 추이」, 『호남고고학보』 21, 호남고고학회

최성락, 2009,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의 검토」, 『호남고고학보』 33, 호남고고학회

이도학, 2013,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백제문화』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김승욱, 2014,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문안식, 2014, 「제의 전남지역 마한제국 편입 과정-서남해 지역 및 연안도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문안식, 2014, 「특집 :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 제국 편입 과정 - 서남해지역 및 연안도서를 중심으로 -」, 『백제학보』 11, 백제학회

김규정, 2016, 「마한의 성장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김재홍, 2016, 「박물관 속의 고대사」, 『한국 고대사연구』 84, 한국고대사학회

### 웹사이트

국립나주박물관, <http://naju.museum.go.kr/html/kr/>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미천서원 & 나주읍성

- |             |                 |
|-------------|-----------------|
| 1. 미천서원과 남인 | 2. 미천서원         |
| 3. 나주읍성 개요  | 4. 나주읍성의 구조와 형태 |
| 5. 나주향교     |                 |

### 1. 미천서원과 남인

#### 1) 남인의 학풍

남인은 16세기 말 봉당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등장했다. 이들은 지역기반에 따라서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영남(嶺南) 남인과 서울·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근기(近畿) 남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황의 학문이 남인의 학술적 근거가 되었다. 이들이 예송과 환국을 거치는 가운데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학술적 측면에서 개성적인 업적을 남겼다.

영남지역의 남인들의 경우, 이황의 학문을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활동했으므로 성리학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 않았다.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이들은 주리론에 입각하여 치자(治者)의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였고, 향촌사회에서 구심을 이루었다. 주요 인물로는 이재(李裁)·김성탁(金聖澤)·이상정(李象靖)·이광정(李光靖) 등이 있으며, 19세기 영남지역 남인의 학문은 이진상(李震相)에게로 이어졌다.

이와 달리 서울·경기 지역 남인은 성리학에서만 그치지 않고 학술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때로 중앙정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인 중에는 인조반정 이후 숙청된 북인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북인계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허목(許穆)·윤휴(尹鑄)·유형원(柳馨遠) 등이 있다. 이들은 남인·북인의 학문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었고, 경세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북인계 남인이 시도한 다양한 학문적 가능성과 국가개혁의 논리는 후계 근기 남인들에 의해 정밀히 다듬어졌다. 이들은 주자학적 사유와는 다른 관점으로 경서를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이들은 조선 후기 새롭

게 대두한 학풍인 실학(實學)의 주요 담당자로 역할하기도 했다. 근기 남인의 대표적 인물로는 성호학과(星湖學派)를 형성했던 이익(李瀾), 그의 학문을 계승한 권철신(權哲身)·안정복(安鼎福), 그리고 정약용(丁若鏞) 등이 있다.

영남, 근기 지방 외에 남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호남지역의 남인계 사람은 영남 남인 처럼 향촌사회를 확실하게 장악하지는 못했다. 이는 호남지역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여 복합적인 당색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봉당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는 지역에 따라 서인·노론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북인·남인계가 많은 지역으로 나뉘어 향전(鄉戰)이 전개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군현 내에 공존하는 모습도 보였다.<sup>188)</sup>

(13 김병권)

## 2. 미천서원

### 1) 개관

미천서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의 철로변에 자리한 서원으로 17세기 조선시대 거유인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의 도학정신을 기리고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1690년(숙종 16) 호남유림의 연명상소를 계기로 나주 금강(지금의 영산강) 미천 위에 사우로 건립되었다가 1693년(숙종 19), 정만재를 중심으로 한 나주유림들이 상경하여 청액소를 올려 ‘미천’이라는 사액을 받게 된다.<sup>189)</sup> 현재 전라남도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있다.

미천서원은 서원뿐만 아니라 서원 내에 있는 여러 문화재 역시 가치가 높다. 먼저 허목의 문집인 『기언(記言)』을 찍었던 목판 1,816판이 서원 내 장판각(藏版閣)에 보관되어 있으며 경내의 중심인 영정각에는 정조대왕이 ‘선인의 풍모와 도사의 골격(仙風道骨)’이라 휘호한 허목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이는 도난당하여 지금은 모사된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또한 강당 뒤편에는 허목의 일화가 담긴 ‘미천’이라는 샘이 있다. 그 일화를 보면, 본래 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안창마을은 물이 귀해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마침 외가인

188) 김문택, 2007,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55-56쪽.

189) 권승규, 1940, 『眉泉書院實記』, 眉泉書院講堂(김중순, 2006, 『나주시지』 1, 나주시지편찬위원회, 761~764쪽에서 재인용).

백호(白湖) 임제(林梯)의 집에 머물던 허목은 이를 듣고 딱하게 여겨 한 지점을 가리키며 자신이 지정해 준 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일렀다. 그 곳을 파보니 물이 넘쳐흘러 샘을 이루었다. 이에 사람들이 감동하여 ‘미수가 지정해준 샘’이라고 하여 ‘미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원 터의 선정과 이름 역시 이 샘과 관련이 깊다.

## 2) 허목의 일생

허목은 남인 중 청남(淸南)의 영수로 조선후기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어 간 인물이다. 본래 가계는 인조반정으로 실권한 소북(小北)계로 그 역시 인조반정의 영향으로 과거에 뜻을 접고 산림의 길을 택했다. 초야에 묻혀서 제자백가를 섭렵하며 성리학을 다졌을 뿐 아니라 노장사상과 도가적 인생관 등 다양한 학문적 편력을 했다.<sup>190)</sup> 허목은 인생의 말년인 63세에 효종의 부름을 받아 사헌부의 정5품 관직인 지평(持平)으로 출사했다. 출사 이후 남인과 뜻을 같이해 서인에 대적했으며 제1차 예송인 ‘기해예송’과 제2차 예송인 ‘갑인예송’을 거치며 대사헌, 이조판서에 이어 우의정에 임명되면서 남인의 거두로 거듭난다. 그는 예송논쟁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학문적 세계를 펼쳐나간다. 그의 학문은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주자성리학을 중시했던 17세기의 시대 분위기에 반해 제자백가·도교·풍수지리·불교 등에도 능한 비순수 성리학적 성격이 짙었다. 이를 바탕으로 허목은 원시유학인 육경학(六經學)을 기초로 하여 고학(古學)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 같은 허목의 개방적인 학풍은 서경덕(徐敬德)과 정구(鄭述)에게 받은 영향의 결과였다.<sup>191)</sup> 이후 1680년 발생한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고 이에 따라 허목은 향리로 방출되어 88세에 숙종이 하사한 은거당(恩居堂)에서 생을 마감한다.

## 3) 건립배경과 연혁

이처럼 조선시대 남인을 대표하던 삶을 살았던 허목을 기리기 위해 1690년(숙종 16), 호남유림 650인의 건의로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사우를 건립하게 된다. 나주 금강 미천상에 건립되었던 사우는 이후 정만재를 중심으로 한 나주유림들이 상경하여 청액소를 올려 ‘미천’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1705년(숙종 31) 미천서원 초대원장 참판 심단이 임석하여 원중절목 18조목<sup>192)</sup>을 만듭으로써 서원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서원은 몇 차례 중

190) 정옥자,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184쪽.

191) 정옥자, 위의 책, 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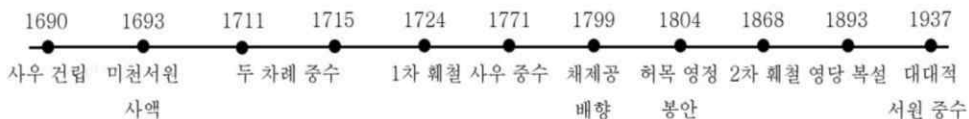
192) 봄, 가을 제향시 제반사항과 사우건물의 중, 개수, 예의범절에 관한 사항, 원중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수를 거치는데 1711년(숙종 37)에는 홍명한이 원이(院貳)로 있으면서 서원을 중수하였고, 4년 뒤 1715년(숙종 41)에 별유사 이양승에 의해 강당과 재실을 중수되었다.

그러나 서원은 호남의 대표적인 남인계 서원이었던 까닭에 당쟁에 휘말려 훼손과 복설을 거듭했다. 이 서원이 봉당정치 하에서 각 봉당의 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기지 역할이 었기 때문에 중앙의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193)</sup> 1724년(경종 4), 사원은 당시 조령 중에 갑오년 이후(1714)에 창건된 사우를 훼손하라는 칙령을 빌미로 1차 훼손을 당한다. 사실 서원은 갑오년 이전에 창건되어 조령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라도 유학 김상택이 이를 남설서원으로 보고하면서 결국 훼손된다. 이에 나주유생들이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당시 허목을 중심으로 한 남인계 인사들을 적대시하던 서인계 감사의 계책에 의해 이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원은 다시 중건되었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전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1771년(영조 47)에 원이 채홍원이 사우를 중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그 이전에 사우가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채제공이 양사재를 중수하였으며(1778) 이후 그는 1799년(정조 23) 허목보다 후대의 인물이긴 하나 그의 학문을 따르고 미천서원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배향되었다. 1794년(정조 18)에는 왕명에 따라 허목의 영정 3매가 완성되었으며 이는 1804년(정조 28) 서원에 봉안되었다.

이처럼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하여 오던 중<sup>194)</sup> 1868년(고종 5)이 되자 서원은 서원 철폐령으로 다시 한 번 훼손된다. 그 여파로 영당과 장판각은 허목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주시 삼영 등 선산 아래의 영당마을로 옮겨지게 되었다. 1893년(고종 30) 다시 미천서원의 옛 터인 지금의 자리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영당을 복설하였고 현재 자리로 영정 또한 이안하였다. 이와 함께 정면 6칸, 측면 3칸의 강당도 중건되었다. 1930년 조기중에 의해 강당 일부가 중수되었고, 이때 미천서원 운영을 위한 모현계(慕賢契)가 결성되었다. 이후 1937년, 후손 허영규가 대대적으로 서원 중수를 추진하여 미천서원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sup>195)</sup>



### 미천서원의 연혁

내용을 기재함.

193) 李樹煥, 2001,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45~46쪽.

194) 송일기, 1998, 『全南 書院의 木板』,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 107쪽.

195) 김종순, 2006, 『나주시지』, 1, 나주시지편찬위원회, 761~764쪽.

#### 4) 미천서원 주요 유물 - 기언목판

미천서원의 주요유물인 기언목판은 허목의 시문집 『기언(記言)』을 판각한 것이다. 이는 예학에 밝았던 허목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누락된 부분 없이 보존상태가 좋아 문헌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목판으로, 현재 미천서원 장판각에 861매가 보관되어 있으며 1999년 7월 5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7호로 지정되었다.<sup>196)</sup>

목판은 전체 크기가 가로 54cm, 세로 25cm로, 테두리는 사주(四周)가 쌍변으로 되어 있고 반곽의 크기는 가로 15.5cm 세로 21.5cm이다. 판면은 계선이 보이고 반면은 10행으로 한행에는 18자가 배자되어 있다. 판심부에는 기언이란 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그 아래로 권수와 장수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어미는 기준판인 제1판은 상하내향에 흑어미로 되어 있으나,<sup>197)</sup> 그밖에 책판에는 2엽화문어미(二葉花紋魚尾)의 모양이 거의 절반 가깝게 보이고 있다.

기언목판의 바탕이 되는 『기언』은 모두 93권 25책으로 원집 46권, 속집 16권, 습유 2권, 자서 2권, 자서속편 1권, 별집 26권으로 구성된 목판본이다. 이 문집은 허목 자신이 직접 편찬하였으며 1689년(숙종 15) 왕명에 의해 간행되었다. 문집명을 ‘記言’이라고 한 이유는 언행이 군자의 관건이며 영욕의 갈림길이므로, 이것이 두려워 날마다 반성하기 위해 말로 기록한 때문이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대사헌 시절에 『심학도』와 『요순우전수심법도』를 찬진하여 심학의 대요를 밝혔고, 『논정폐소』를 지어 둔전제·호포제·과거제 등의 폐단을 개혁할 시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설에 관한 내용으로 「대왕대비복제수의」에서 효종의 승하에 따른 복제 문제에 대해서 3년 설을 주장하여 파란을 야기하였다. 그밖에 『논이기』와 『심지지각』에서 이기와 형상에 관한 철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문학과 고문에 대한 해박한 언급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사』 내 「흑치열전」에서는 일본을 ‘흑치’라고 부르며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를 우방으로 여기려는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sup>198)</sup>

『기언』 책판의 판각 시기는 연대추정에 의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 문집과 달리 『기언』은 사후가 아닌 생존 시에 이미 지어 놓고 있었으며 문집의 전체적인 편집도 그가 직접 준비해두었기 때문이다. 대신, 1674년을 기점으로 「원집」과 「속집」이 구

196) 송상형, 「나주미천서원기언목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7087](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7087), (검색일자 : 2017. 09. 13.).

197) 어미란 판심의 중봉(中縫)에서 물고기의 꼬리와 같은 모양이 인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 어미가 검은 바탕인 것을 흑어미라고 부른다.

198) 韓永愚, 1985, 『허목의(許穆) 고학과 역사인식 - 《동사(東事)》를 중심으로』, 11(3), 한국학보, 40쪽.

분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생존하였던 시기에는 문집의 정리에 주력했을 뿐 간행 사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문이 작성되었던 무렵에는 주로 원집의 편찬과 체제를 다듬었던 시기로 보이며 문집이 판각 간행되지 않았다.

이후 1689년(숙종15) 실록을 보면 시독관 이봉치가 허목의 문집을 간행할 것을 주청하자 숙종이 이를 시행토록 한 점을 보아 이 무렵 문집이 판간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남의 서원, 사우』에 따르면 1706년(숙종32) 겨울 당시 원어로 있던 홍중하가 판각을 시작하였으나, 1707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도사(都事) 권시경이 각 읍에 일을 분정하여 1721년(경종 1)에 완각하고 이듬해 교정을 보아 완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실록에 기록된 간행 연대와 상당한 시차를 보이고 있다.<sup>199)</sup>

기언목판은 서원 훼손시 삼영동 영당마을로 옮겨 보관하다가 1893년(고종30) 미천서원 복설시 옮겨 보관하였다. 이때 경중사론(京中士論)이 후대 문적산실(文籍散失)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론에 따라 그 대책으로 기언 판본을 정리, 보완하여 기언문집 원집 6권, 속집 1권 등 총 67권이 간행되었고, 별집 26권이 보완되어 총 25책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남산의 정열사를 옮길 때 건물을 해체하여 이곳에 조립하고 장판각으로 활용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1997년 새로 강당 좌측에 장판각을 신축하여 두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sup>200)</sup>

(12 김신형, 16 김예림)

### 3. 나주읍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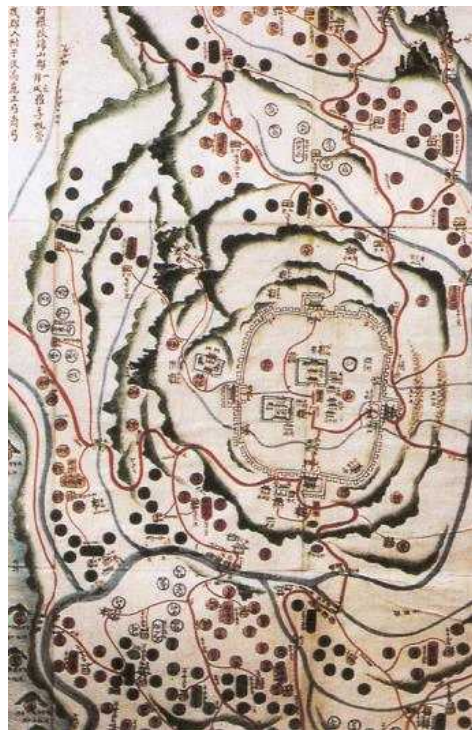
나주읍성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읍성으로 사적 제377호로 지정되어있다. 나주는 고려의 건국 초기에 태조 왕건의 해상 세력 거점으로서 역사 전면에 등장한다. 고려 건국 직후인 940년에 금성군이 나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고려 시대에 전라도를 대표하는 고을로 자리하게 되고, 이후 전라도의 중심으로서 조선시대 말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의 성터 길이는 3,300m이며 조선 초기인 세조 3년(1457)에 김계희 목사가 부임하던 때인 1457~1459년 사이에 축성한 것이다. 『고려사』 열전 김정손전(1237년, 고종 3)에 나타난 나주성 전투와 현문 기록, 『고려사절요』 1237년(고종 3)의 나주성 전투 기록, 『삼봉집』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축성 시기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고려시대에 이미 현문을 갖춘 나주읍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01)</sup> 조선시대의 나주

199) 송일기, 앞의 책, 109~110쪽.

200) 송상형, 앞의 자료.

201) 이경찬, 2015, 「조선 후기 나주읍성의 도시형태 형성과정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1-10.

읍성은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비교해보았을 때 임진왜란을 전후로 대대적인 중수와 복구 등의 변화과정이 있었음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이르러 나주읍성은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되면서 읍성의 양 옆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상징하는 경찰서와 일본 사찰인 본룡사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현재의 나주읍성은 서쪽 성벽만이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읍성의 남문인 남고문은 1997년에 복원되었으나 나머지 3개문은 터만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나주읍성 고지도

#### 4. 나주읍성의 구조와 형태

주시 남내, 성북, 금남, 향교동 일대 돌로 쌓은 성이 바로 이 나주읍성인데 나주읍성은 동서남북에 4개의 성문을 설치하고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원래 나주읍성은 정방형 돌로 쌓은 석성으로 둘레가 3,126척, 높이가 9척, 포루가 3개이며 성안에는 우물이 20여 개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서문 주변 100여 미터의 성벽만이 남아 있다. 또 이 성의 성문은 4개로 동문인 동점문(東漸門)과 남문인 남고문(南顧門)은 중층문루로 된 철문이었고 서문인 서성문(西成門)과 북문인 북망문(北望門)은 단층 철문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없어지고 북문지에 초석 일부만 남아 있다. 옛날 성안에 있던 건물로는 객사(客舍)였던 금성관(錦城館), 객사문(客舍門)인 망화루(望華樓)와 내아(內衙)가 남아 있으며, 1993년에 남문지에 복원한 남고문이 있다. 남고문은 중층문루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화려한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나주읍성의 옛 모습 일부를 보여

대한건축학회, 144쪽.

주고 있다.<sup>202)</sup>

중심시설인 궁실(객사)은 나주읍성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객사로의 진출입은 동문로와 남문로가 합류한 뒤 방향을 틀어 남문(만화루)를 통하여 진입되는 전형적인 진출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해시설의 핵심시설인 아사는 객사 서남측 일정구역을 점유하며 위치하고 있는데 아사로의 진출입은 객사 남문으로 연결되는 남북측 도로로부터 정문(정수루)을 통하여 동측으로 이루어진다.

부속 공해시설은 크게 4개의 소구역으로 구분되어 배치되었다. 먼저 객사의 서측, 아사의 북측 소구역에 이청, 주사(州司)를 비롯하여 고마청(顧馬廳)·관노청(官奴廳)·교방청(敎坊廳)·신청(新廳)·관청(官廳) 등이 배치되었다. 객사의 동측으로 서원청(書員廳)·연무청(鍊武廳)·진휼창(賑恤倉) 등이 배치되고 그 남측 아사의 동측으로 추청(秋廳)·통인청(通引廳)·대동청(大東廳)·장방청(長房廳)·훈련청(訓鍊廳)·교련청(敎鍊廳) 등이 배치되었다. 아사의 남측으로 군관청(軍官廳) 등이 위치한다. 객사의 북측 소구역에는 군고(軍庫)·향청(鄉廳)·향사당(鄉社堂)을 비롯하여 읍창(邑倉)이 위치하였다. 한편 옥(獄)은 객사의 동북쪽을 이용하여 배치하였다. 향교구역은 읍성 서문 밖에 금성산의 한 지맥인 낙타봉 줄기가 동남방향으로 흐르며 만든 작은 국면을 이용하여 별도의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향교구역으로의 주 진출입은 서성로부터 북쪽으로 이루어지는데, 향교를 중심으로 서문 밖에 작은 향교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진영구역은 남문과 공동산 사이에 남성벽과 영강진 연결로, 남측 경계도로, 서측 경계도로를 이용하여 별도의 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주 진출입은 영강진 연결로와 남측 경계도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진영구역과 인접하여 영강진 연결로 변에는 남문외장이 위치하였다. 나주읍성 내 거주생활구역은 양인과 향리층을 중심으로 서문 일대와 객사 서북쪽, 남문 일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sup>203)</sup> (14 류희주, 14 황석현)

## 5. 나주향교

### 1) 향교의 역할과 나주향교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삼국시대 때부터 설립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교육 기관

202)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e-minwon.go.kr:8072/lfmn/CpmsmastR\\_\\_01.do?p1=1333603370000&RADIO\\_NO=0](http://www.e-minwon.go.kr:8072/lfmn/CpmsmastR__01.do?p1=1333603370000&RADIO_NO=0),

(검색일자 : 2017. 09. 13.).

203) 이경찬, 앞의 논문, 146~147쪽.

과 교육의 내용 및 교육의 명칭이 함께 변화해 왔다. 1308년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이 성균관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의 국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향교를 설립하였다. 고려가 지방 교화에 힘쓰기 시작한 것은 성종 대부터로, 향교라는 정식 명칭은 1142년(인조 20)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향교는 각 군과 현에 설립되었고 몽고 침입기와 무인 집권기 때 그 위상이 주춤하였지만 이내 공민왕 대부터 재건되어 그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sup>204)</sup>

조선시대 향교의 목적은 유학을 널리 가르치고 이를 제대로 배우게 하여 유학적 소양이 높은 선비들을 양성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데에 있었다. 유교의 통치원리로 운영되던 조선은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1398(태조 7)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기리는 대성전이 있는 문묘, 유학을 가르치는 대성전, 그리고 다른 부속건물들로 구성된 성균관을 짓고 각 지방에 이를 본뜬 향교를 설치하였다.<sup>205)</sup> 이는 곧 향교가 교학의 기능, 문묘의 기능 그리고 사회교화 및 지방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함께 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06)</sup>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향교인 나주향교는 성종 때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1398년(태조 7)에 한양에 공자와 그 제자들을 배향하는 문묘 대성전과 진사, 생원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유학을 연마한 명륜당, 그밖에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진 성균관을 지었고, 그 후 전국 각 지방에 성균관을 본떠서 향교를 세웠는데 나주향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주는 전주에 이어 호남에서 두 번째로 큰 고을이었으므로 향교의 규모도 다른 곳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크고 위엄이 있다. 나주향교는 서울 문묘와 강릉·장수·영천향교와 더불어 중등교육을 관장하던 곳으로서 조선시대의 향교 건축의 장중함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또한 임진왜란 때 소실된 서울 문묘 대성전을 선조 35년(1602)에 재건할 때 이 건물을 원형으로 삼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대성전 건물의 전형이 되는 곳도 나주향교이다.

향교 입구에는 충복사유허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는 1597년(선조 31) 임진왜란 당시 대성전 수복이었던 김애남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다. 김애남은 전쟁 동안 목숨을 걸고 향교의 위패를 지켜 왜군이 물러간 뒤 다시 봉안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충정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사우를 건립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충복사유허비의 주된 내용이다. 나주향교가 임진왜란 당시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김애남의 활약 때문이라는 것을 이 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향교의 정확한 연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유재란의 여파로 소실된 부분들이 인조 연간에 중건되고, 현종 숙종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수, 중건

204) 이상해, 1990, 『한국 미의 재발견- 궁궐 유교건축 12』, 솔, 149쪽.

205)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03, 『전남 -답사여행의 길잡이 5』, 돌베개, 123쪽.

206) 이상해, 앞의 책, 150쪽.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건물이 차례로 헐리는 등 수모를 겪었지만 이후 1959년 동재, 서재를 중건, 1980년 명륜당과 동·서익당 보수, 1981년 담장 개축, 1994년 말에는 대성전과 함께 대성전 앞에 자취만 남아 있었던 공자의 제자와 현인들의 위패를 모시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나주 향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전처럼 교육의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봄과 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와 보름에 성현에 대한 분향을 한다.<sup>207)</sup> 나주향교는 조선시대 때에는 나주읍성의 서문 바깥쪽에 위치했는데, 나주의 금성산에서 뻗어나온 장원봉 산자락이 감싸고 있는 곳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작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sup>208)</sup> 나주향교는 다른 지역의 향교와 여실히 비교, 구분되는 구조적 특징들이 있는데 나주향교의 형태와 구조를 다루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나주향교의 구조 및 특성

나주향교의 기능과 공간은 성균관을 본뜬 것으로 제향공간, 강학공간, 그리고 부속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향공간은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있는 문묘와 제사를 관장하는 전사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학공간은 교생들이 유학을 학습하는 명륜당과 그들의 기숙사 역할을 했던 동·서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직사를 비롯한 나머지 건물들은 부속공간에 속한다.<sup>209)</sup>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담으로써 독립된 영역에 위치하며,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배열에 따라 해당 향교의 건축 방식이 바뀐다.

향교의 구조는 제향공간이 강학공간 앞에 위치하는 전묘후학, 그 반대인 전학후묘, 또는 그 둘이 일렬로 배치된 병렬식 구조로 나뉜다. 주로, 조선 초기나 대도시 및 평평한 땅에 위치한 향교는 전묘후학의 구성으로 배치되었고, 중소도시나 경사진 땅에 위치한 향교는 대성전(제향공간)을 강학공간 뒤편에 배치하여 대성전이 늘 우위에 있게 하는 전학후묘의 구성으로 배치되었다. 향교는 후대로 올수록 전조후침의 궁전 배치 방식의 영향을 받아 전학후묘로 바뀌어갔다.<sup>2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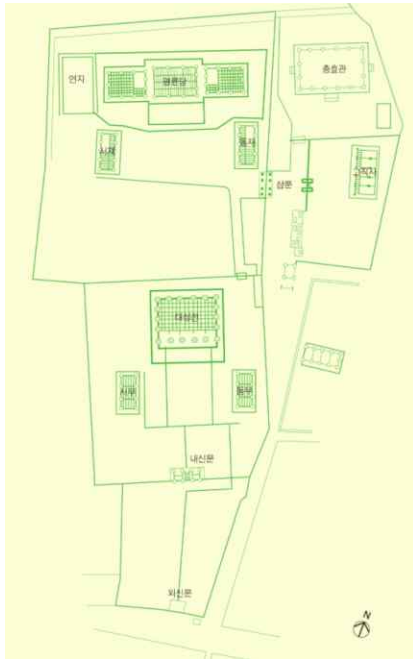
나주향교는 서울의 문묘와 같이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위치한 전묘후학의 배치를 따르는데, 그 이유로 계성사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계성사는 공자의 아버지와 공자의 네 제자(안자, 맹자, 자사, 증자)의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나주향교와

207)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앞의 책, 126쪽.

208) 이상해, 앞의 책, 169쪽.

209) 이상해, 위의 책, 150쪽.

21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앞의 책, 125쪽.



나주향교도면

성균관 문묘, 전주향교 그리고 함평향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sup>211)</sup>

나주향교의 구조적 특이점은 전묘후학의 배치 방식뿐만이 아니다. 나주향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대형 규모의 향교로, 지방의 여느 다른 향교와는 눈에 띄게 다른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다. 바로 외신문과 내신문의 두 가지의 신문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계성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아주 큰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나주향교의 명륜당은 성균관의 명륜당과 같은 형태로 가운데에 위치한 중당의 지붕이 좌우에 연결된 익당의 지붕보다 더 높게 지어져 그 규모가 성균관만큼이나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sup>212)</sup>

## (1) 제향공간과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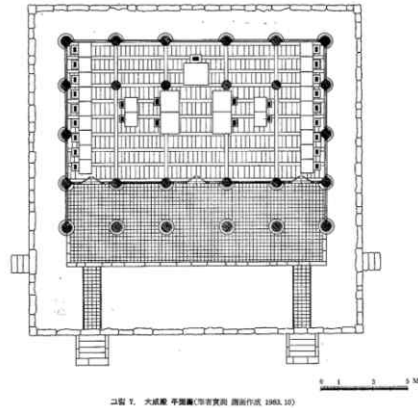
더 나아가 나주향교의 공간에 따른 구조적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향교의 초입 부에 있는 외신문과 하마비를 지나쳐 내신문을 통과하면 앞에 대성전이 보인다. 외신문은 3칸 규모의 평삼문 우진각지붕이고, 내신문은 3칸 규모의 평삼문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은 공자 등의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종자를 중심으로 안자, 중자, 자사, 맹자 등 공문 10철, 송조 6현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된 주심포계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공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건물이다. 나주향교의 대성전은 서울의 문묘, 장수향교, 강릉향교의 그것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건축된 대성전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sup>213)</sup> 건물의 건축 목적인 제례에 적합하도록 앞 쪽은 한 칸을 띄워놓았고, 바닥에는 장마루와 전돌이 넓게 깔려있으며 건물 내부는 트여있

211) 이상해, 앞의 책, 169쪽.

212) 이상해, 위의 책, 170쪽.

213) 이상해, 앞의 책, 170쪽.

다. 천장은 위의 구성체가 보이도록 트여있는 연등천장이며, 건물 앞의 주춧돌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는 꾸밈없이 수수함을 추구하던 조선의 시대상에 비추어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성전의 지붕골은 아주 깊으며 기둥 사이의 간격도 매우 넓어서 그 위엄과 장중함이 느껴진다. 나주향교의 대성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문묘를 복원할 때 나주향교의 대성전을 원형으로 삼았다는 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성전 건물의 전형이다. 대성전의 앞 뜰 양옆에는 동무와 서무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 위와 같은 건축 양식은 나주향교가 조선 중기적인 건축양식으로 건축되었음을 알려준다.<sup>214)</sup>



대성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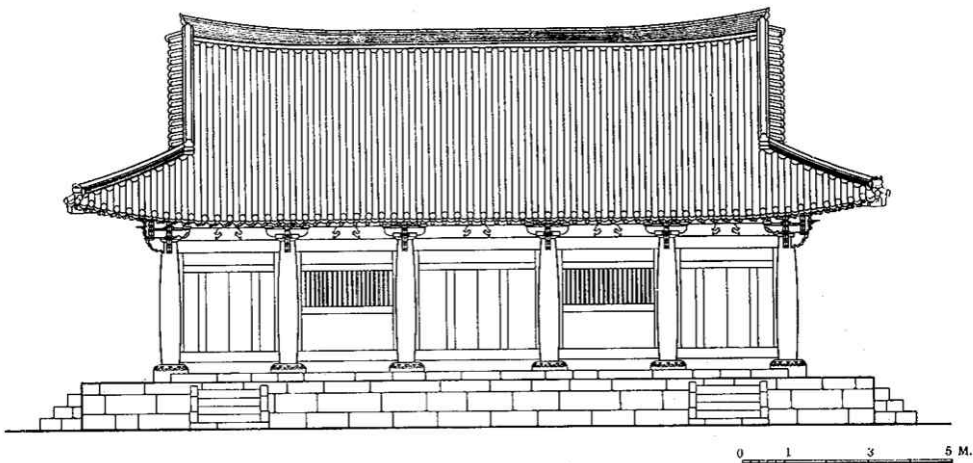


그림 8. 大成殿正面圖(筆者實測 圖面作成 1983. 10)

대성전 정면도

## (2) 강학공간과 명륜당

대성전의 동북쪽 뒤편에 난 작은 문을 따라 나가면 강학공간이 펼쳐진다. 교관과 교생들

21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앞의 책, 123쪽.

은 강학공간의 중심인 명륜당에 모여 강학을 한다. 명륜당은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교관의 숙소였던 온돌방이 있다. 동·서재는 명륜당 앞뜰을 바라보며 동쪽과 서쪽에 대청으로 배치되어있다. 주로 호남지방 향교의 강학공간 건물 배치방식은 명륜당이 강학공간의 앞에서 북쪽을 향하고 동·서재가 명륜당의 북쪽에 자리하는 것이다.<sup>215)</sup>

명륜당은 중당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우물마루가 깔린 대청마루와 연등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동재와 서재는 모두 동일하게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지어진 맞배집이고, 그 건물은 마루방 두 칸과 온돌방 두 칸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앞부분은 퇴칸을 구성하며 외부로 트여있으며, 전면의 기둥만 원기둥이다.<sup>216)</sup> 나주향교의 강학공간은 전체적으로 나주목의 향교, 성균관과 같은 격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sup>217)</sup> 동재 남동쪽에는 문이 있어 그곳을 따라 나가면 부속공간인 고직사로 갈 수 있다.

(14 류희주, 16 노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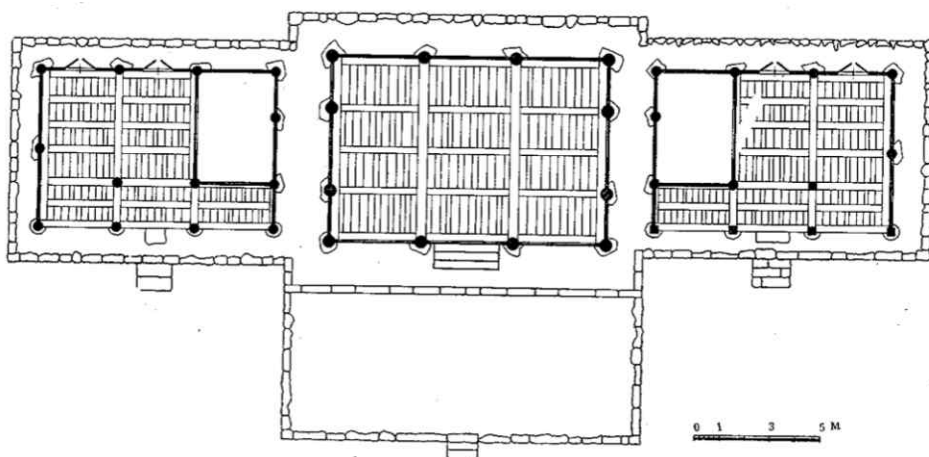


그림 11. 明倫堂 平面圖(筆者實測 圖面作成 1983.10)

### 명륜당 평면도

215) 이상해, 앞의 책, 151쪽.

216) 이상해, 위의 책, 170쪽.

217) 이범직, 1989, 「나주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7-238쪽.

## [조선시대 나주 참고문헌]

### 단행본

- 眉泉書院, 1939, 『眉泉書院誌』, 眉泉書院  
권승규, 1940, 『眉泉書院實記』, 眉泉書院講堂  
羅州郡, 1980, 『羅州郡誌』, 羅州郡  
이범직, 1989, 「나주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상해, 1990, 『한국 미의 재발견- 궁궐 유교건축 12』, 솔  
송일기, 1998, 『全南 書院의 木板』,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  
李基白, 1999, 『한국사신론』, 일조각  
李樹煥, 2001, 『朝鮮後期 書院研究』, 一潮閣  
정옥자,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03, 『전남 -답사여행의 길잡이 5』, 돌베개  
鄭豪薰, 2004,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김중순, 2006, 『나주시지』 1, 나주시지편찬위원회

### 논문

- 김지민, 1984, 「조선시대 향교건축에 관한 연구 - 나주향교를 중심으로」, 『건축』 28-2, 대한건축학회  
韓永愚, 1985, 『허목의(許穆) 고학과 역사인식-《동사(東事)》를 중심으로』, 11(3), 한국학  
김문택, 2007,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韓永愚, 2014,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이경찬, 2015, 「조선 후기 나주읍성의 도시형태 형성과정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1-10, 대한건축학회

### 웹사이트

- 송상형, 「나주미천서원기연목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7087](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7087), (검색일자 : 2017. 09. 13.)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e-minwon.go.kr:8072/lfn/CpmsmastR\\_\\_\\_01.do?p1=1333603370000&RADIO\\_NO=0](http://www.e-minwon.go.kr:8072/lfn/CpmsmastR___01.do?p1=1333603370000&RADIO_NO=0), (검색  
일자 : 2017. 09. 13.)

# 국립 5.18 민주묘지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 민주묘지 조성의 역사
3. 5.18에 대한 사후 처리와 배상문제
4. 5.18 특별법
5.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현황

##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국가 폭력에 대항해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다.<sup>218)</sup> 군과 시민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어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시민들 또한 총기로서 무장하고 이에 대항하였으나, 5월 27일 새벽에 시행된 군의 상무충정작전으로 10일간의 항쟁은 막을 내렸다.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져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 관련자는 처벌되었으며 2011년에는 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sup>219)</sup>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2만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열고 대대적인 횃불행진을 벌였다.(5.18 기념재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생 배경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군의 경우, 박정희 정권 및 12.12 사태를 거치며 군 내 강경파인 신군부가 주요 정치 세력이 되었고, 이는 군의 정치적 동원 법제화 및 공수부대의 민중시위 진압 경험과 맞물려서 5.18 민주 항쟁의 무력진압에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218) 노영기, 2013, 「5.18 항쟁의 배경과 참여세력」, 『역사와 현실』 89, 한국역사연구회, 343~344쪽.

219) 노영기, 위의 논문, 343~344쪽을 참고함.

를 성장시켰는데, 이때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확산된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5·18 민주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5·16 쿠데타 이후 학생 및 법조계, 종교계, 노동자 및 농민층까지 계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하였던 민주화 운동과 유신체제 성립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반유신운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20)</sup>

한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음과 같은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1979년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민중들의 여러 요구가 분출되면서 생존권 투쟁<sup>221)</sup> 및 유신 잔재 청산 운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대학의 유신 잔재 청산 운동<sup>222)</sup>은 5월 초를 기점으로 민주화를 위한 정치 투쟁으로 급격히 그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던 전남대 학생들의 도청 앞 광장 점령, 집회 강행 등의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한편 정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5월 12일 전군에 비상을 발령하였고,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자 했는데, 18일 아침 발생한 전남대학교 교문 앞의 시위는 직접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작된 공수부대원들의 무력진압은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5월 19일 오후에는 시위의 중심 세력이 대학생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5월 20일 18시경에는 시위가 차량 시위(대형트럭, 고속버스, 시외버스, 영업용 택시 등 200여대의 차량 시위)로 확대되어 군중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었다. 이렇게 시위가 확대되어가는 와중에 5월 21일 광주에서는 시외전화가 차단되었고, 계엄군은 군중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시민들도 총으로 무장 항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민주항쟁은 목포, 무안, 함평, 나주, 화순, 강진, 영암, 해남 등 전남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5월 22일부터 26일 동안 결성된 5·18 수습대책위원회 및 총 5차에 걸쳐 개최된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오갔으나, 5월 27일 새벽 시행된 군의 상무충정작전으로 항쟁은 완전히 탄압되었다.<sup>223)224)</sup>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 정권을 부정하는 운동으로 그 정신이 계승되어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졌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권위주의 정권 부정 운동은 비합법 투쟁에 해당했으나, 이후 1987년부터 2002년까지 '5·18'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이상 '난동'과 '폭도'가 아닌 '민주화 운동'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과거청산 운동 및 5·18 피해자 보상, 5·18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5월 운동<sup>225)</sup>의 내부 분화가 일어나기

220) 노영기, 위의 논문, 346~354쪽을 참고함.

221)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및 임금 86% 인상' 요구 및 농민들의 5월 18일 '함평고구마투쟁 2주년 기념식' 등.

222) 총학생회 부활과 어용 교수 퇴진을 목표로 함.

223) 노영기, 앞의 논문, 355쪽.

224) 최정기, 2015, 「광주민주항쟁과 민주, 인권 그리고 평화」, 『일교육연구』, 한일합동교육연구회, 16~21쪽.

도 했다. 이후 5·18 기념의례가 제도로 자리 잡은 후부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긍정의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 연대 노력<sup>226)</sup> 및 교육 운동<sup>227)</sup>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sup>228)</sup> (문헌정보학 14 남유경)

## 2. 민주묘지 조성의 역사

처음에 망월동 묘지에는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이 묻혀 있었다. 당시 가족과 친지들은 항쟁 와중에도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 와 이곳에 묻었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함락 때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 와 묻혔다. 그 뒤 이곳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자 군사반란집단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없애려 획책하기도 했다.<sup>229)</sup>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 민주항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의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 정부”라고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분명히 한 뒤, 앞으로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정신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sup>230)</sup> 이후 광주광역시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34번지에 5·18묘지를 조성하였다.<sup>231)</sup>

묘역조성공사는 1994년 11월 1일 시작해 1997년 5월 13일 완공하였다. 망월동 묘역에 묻혀있던 희생자들 대부분이 새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새로운 묘역은 2002년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통령령 제17668호에 따라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또한, 2006년 1월 30일에는 법률 제7649호에 따라 국립 5·18민주묘지로 개칭되었다. 망월동 5·18 구묘지는 원형을 복원해 겉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225) 5월 운동은 '5·18' 이후 '5·18'의 정신을 매개로 전개되었던 전국적 수준의 민주화 운동을 통칭함.

226)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1998년), 동아시아지역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의 연대 네트워크 형성(1999년 이후 전개),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대회(2000년), 광주 인권상 제정 등.

227)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 및 만화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 교사 초청 연수회 개최, '5·18' 관련 토론회, 논문현상 공모 실시 등.

228) 최정기, 앞의 논문, 22~24쪽.

229) 국립5·18민주묘지, <http://518.mpva.go.kr>, (검색일자 : 2017. 09. 14.).

230) <mbc 뉴스>,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1993. 05. 13.,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264\\_1941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264_19418.html), (검색일자 : 2017. 09. 20.).

231)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26425](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26425), (검색일자 : 2017. 09. 14.).



망월동 구묘역(5·18 기념재단)

사적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sup>232)</sup>

국립 5·18 민주묘지는 묘역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해 두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추념문과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국립 5·18 민주묘지 무장항쟁군상과 국립 5·18민주묘지 대동세상군상 등이 있다. 또한, 5·18 추모관을 두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추모와 기록, 상징과 교육의 공간을 마련해두었다.<sup>233)</sup>

(14 손명지)

### 3. 5·18에 대한 사후 처리와 배상문제

#### 1) 사후 처리

5·18 민주화 운동이 군부에 의해 진압된 후, 1987년 6월 항쟁이 이끈 6.29 민주화 선언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제6공화국이 시작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화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232) 국립5·18민주묘지, <http://518.mpva.go.kr>, (검색일자 : 2017. 09. 14.).

233) 국립5·18민주묘지, <http://518.mpva.go.kr>, (검색일자 : 2017. 09. 14.).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가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대통령이 민화위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구조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리 없었다. 또한, 민화위는 처음부터 진상조사 문제나 책임자 처벌에 부정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이루어지자 그 전과는 사뭇 다르게 변화하였다. 여소야대 정국이 수립된 후 1988년에는 여야합의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8년 6월부터 1989년 2월까지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광주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정국 변화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시국에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에서 '광주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1990년 8월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후, 1995년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18 주범들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7일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제정되었다.<sup>234)</sup>

## 2) 5·18에 대한 배상문제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하 광주보상법)이 제정되기 전, 5·18 관련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라 단순한 생활보조, 혹은 위로금 차원으로 제공되었다.<sup>235)</sup> 그런데 이때는 아직 5·18 희생자를 폭도로 규정하던 때인데, 폭도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군대의 과잉진압이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sup>236)</sup> 하지만 광주보상법이 제정된 후, 관련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보상 대상이 1.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 상이를 입은 자(부상자), 3. 기타 희생자(5·18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 등), 4. 유족으로 법적으로 정해졌고,<sup>237)</sup> 보상의 기준, 방법과 체계 또한 법률적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법률은 5·18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이 주장해온 5·18 문제해결 5대 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234) 신일섭, 2005,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5-2,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176쪽~181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235) 신일섭, 위의 논문, 184쪽.

236) 신일섭, 위의 논문, 같은 쪽을 참고함.

237) 이희성, 2007,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법학연구』 27, 한국법학회, 411~412쪽.

만 아니라 집권당의 안정적인 집권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sup>238)</sup> 2002년에는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망 시 국립 5·18 묘지 안장, 본인 유족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04년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5·18 민주화보상법이 안고 있던 문제점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단지 민주 유공자로서 예우와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sup>239)</sup> (16 송준원)

## 4. 5·18 특별법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령적인 약칭은 ‘5·18 민주화 운동법’이다. 그러나 법령 제정을 위해 투쟁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 ‘5·18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다.<sup>240)</sup> 1995년 12월에 제정된 이 법은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 번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어려운 법 문장을 순화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바꾼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 전후로 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sup>241)</sup>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쿠데타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쇄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12.12쿠데타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5·18 무력진압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sup>242)</sup> 요컨대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 각지의 학생들,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 반국가적 내란을 일으킨 인물

238) 민병로, 2017,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민주주의와 인권』 17-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67~69쪽.

239) 민병로, 위의 논문, 70쪽.

240) 이영재, 2015,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 특별법」, 『민주주의와 인권』 15-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01쪽.

241) 국가법령정보센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03866#>, (검색일자 : 2017. 09. 13.).

242) 민병로, 2017,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민주주의와 인권』, 17-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62쪽.

들을 기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하라는 성명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민의 초기 항의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건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여론을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한 뒤, 1995년 12월 21일, 일곱 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sup>243)</sup>

‘5.18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조에서 법률 제정의 목적이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임을 밝히고 있다. 2조는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는 내란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조항 덕분에 기존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뒤집어서 내란 행위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2월 24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잡은 것이다.<sup>244)</sup> 4조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들, 법의 표현을 빌리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245)</sup>

이후 검찰은 ‘5·18 특별법’을 근거로 1996년 1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였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소송이 이어졌고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여 2심에서 정해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었다.<sup>246)</sup> 그러나 이 둘은 같은 해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범죄자들에게 형식적으로 형사적 절차를 밟게 했을 뿐,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조금 떨어져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국에 민주주의를, 그것도 시민들의 노력으로 아래에서부터 공고화시켜 확립시키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sup>247)</sup> (16 조영우)

243) 이영재, 앞의 논문, 97~100쪽.

244) 민병로, 앞의 논문, 63쪽.

245) 국가법령정보센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03866#>, (검색일자 : 2017. 09. 13.).

24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http://www.law.go.kr/nwPrecSc.do?menuId=3&p1=&subMenu=5&nwYn=1&section=&tabNo=&query=#yo>, (검색일자 : 2017. 09. 14.).

247) 이영재, 앞의 논문, 105~107쪽.

## 5.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현황

1980년 5월 22일 신군부가 각 부대에 내린 작전지침서에는 헬기 사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이 담겨있었다.<sup>248)</sup> 이미 밝혀진 전투기의 무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신군부가 시위 진압이 아닌 사실상 전쟁 준비를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37년 만에 해제된 미 국방정보국 문서대로 광주 시민을 말살해야 할 베트콩으로 본 것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sup>249)</sup>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1988년부터 있었다. 1988년 여소야대 정국은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시켰고, 1988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시민 및 국민들의 명예회복, 피해자 배상 및 사후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책임자 처벌 이하 5가지를 목표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 구성이 결의되었다. 이어진 광주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왜곡은폐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되었다. 광주특위는 총 19차례에 걸친 70명의 증언과 클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 1928~2002) 前주한대사, 위컴(John A. Wickham, 1928~) 前주한미군사령관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5·17쿠데타는 구체화된 정권 찬탈행위였음을 밝혀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노태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호지부지되었다.<sup>250)</sup>

증인들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와 사법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적 어려움 역시 광주특위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결국 89년 12월 31일 전두환의 증언을 끝으로 광주특위는 불완전한 진실만을 세간에 밝힌 채 그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다.<sup>251)</sup>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1994년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하지만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피소고인에게는 '무혐의'로

248) <광주방송>, “전일빌딩 헬기사격, 신군부 사전계획 확인”(신민지 기고, 2017.5.15.,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enu\\_id=56\\_65\\_73&uid=294801&mode=view](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enu_id=56_65_73&uid=294801&mode=view), (검색일자 : 2017. 09. 17.).

249) 국회의원 윤소하 사이트, “5.18 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히 통과되어야”(윤소하 논평, 2017. 08. 2., [http://yunsoha.kr/xe/act\\_03/8847](http://yunsoha.kr/xe/act_03/8847), (검색일자 : 2017. 09. 16.).

250) 5·18 기념재단, [www.518.org](http://www.518.org) (검색일자 : 2017. 09. 17.)

251) 오픈아카이브, 「광주특위청문회」, <http://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5073>, (검색일자 : 2017. 09. 17.).

결론 내리자, 1995년에는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에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sup>252)</sup>

하지만 이는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벌이었다. 또한 제대로 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왜곡·조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오고 있다. 이에 2017년 7월 10일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88인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한 상태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sup>253)</sup>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은 정부의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와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선 상태이다. 각급 기관은 기록관 서고와 각 부서에서 보유 중인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2017년 9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5·18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 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sup>254)</sup>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라는 관점에서 객관화하고 냉철하게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가깝고 아픈 기억이다. 그리고 당연히 밝혀야 할 부분들이 아직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기억이기도 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신군부 세력 처벌 이후 흐지부지 됐던 5·18 진상 규명 활동이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진상규명은 정부의 제대로 된 협조 없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부

252) 5·18 기념재단, [www.518.org](http://www.518.org) (검색일자 : 2017. 09. 17.)

253) 의안정보시스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의원 등 8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G7M0Q7Y1X0F1U601G3Z111W1V2H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G7M0Q7Y1X0F1U601G3Z111W1V2H1) (검색일자 : 2017. 09. 17.).

254) <한국일보>, “국가기록원, 5·18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2017.09.06., (검색일자 : 2017. 09. 17.).

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가려져 있는 사실들이 밝혀졌으면 하고 바라본다.

(14 손명지, 15 이주연, 16 송준원, 조영우, 17 박진두)

## [국립 5.18 민주묘지 참고문헌]

### 논문

신일섭, 2005,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5-2,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이희성, 2007,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법학연구』 27, 한국법학회  
노영기, 2013, 「5·18 항쟁의 배경과 참여세력」, 『역사와 현실』 89, 한국역사연구회

이영재, 2015,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5.18 특별법」, 『민주주의와 인권』 15-3,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최정기, 2015, 「광주민주항쟁과 민주, 인권 그리고 평화」, 『한일교육연구』, 한일합동교육연구회

민병로, 2017,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민주주의와 인권』 17-2,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웹사이트

<mbc 뉴스>,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1993. 5. 13.,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264\\_1941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264_19418.html), (검색일자 : 2017. 09. 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자 : 2017. 09. 13.~09. 14.)

국립5·18민주묘지 <http://518.mpva.go.kr> (검색일자 : 2017. 09. 14.)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26425](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26425) (검색일자 : 2017. 09. 14.)

5·18 기념재단, <http://www.518.org/sub.php?PID=010204>, (검색일자 : 2017. 09. 16.)

광주방송, “전일빌딩 헬기사격, 신군부 사전계획 확인”(신민지 기고), 2017.5.15. ,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enu\\_id=56\\_65\\_73&uid=294801&mode=view](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enu_id=56_65_73&uid=294801&mode=view), (검색일자 : 2017. 09. 17.)

오픈아카이브, 「광주특위청문회」, <http://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5073>, (검색일자 : 2017. 09. 17.).

5·18 기념재단, [www.518.org](http://www.518.org), (검색일자 : 2017. 09. 17.)

의안정보시스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의원 등 8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G7M0Q7Y1X0F1U601G3Z1I1W1V2H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G7M0Q7Y1X0F1U601G3Z1I1W1V2H1),  
(검색일자 : 2017. 09. 17.)

국회의원 윤소하 사이트, “5.18 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히 통과되어야”(윤소하 논평), 2017. 08. 02.,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21](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21), (검색일자 : 2017. 09. 16.)

<한국일보>, “국가기록원, 5·18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2017.09.06., (검색일자 : 2017. 09. 17.)

## 2017학년도 사학과 가을 정기 답사 준비 위원회

학생회장 안규상 010- [REDACTED]

부학생회장 전장원 010- [REDACTED]

홍지원 010- [REDACTED]

준비 위원 김건실 010- [REDACTED]

탁현경 010- [REDACTED]

박종현 010- [REDACTED]

오재현 010- [REDACTED]

장산들 010- [REDACTED]